목 차

발간사 2
축사 (성북구청장 / 성북구의회의장) 4

특집 1 | 우리옛돌박물관을 찾아서
수복강녕과 길상, 그 바람을 담아 6
"돌에 담긴 다양한 색과 미소를 마주해보세요." 10

문화예술인 초대석
일생을 만해와 함께 걸어왔네 –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을 만나다 15
음악과 연극을 버무려 맛있는 뮤지컬로 – 박계훈 성북페스티발 사무국장을 만나다 24

특집 2 | 광복 70주년 · 한국전쟁 65주년 기념: 6 · 25 전쟁과 1950년대의 대중가요 35

성북구 역사 이야기
이산 저산 꽃이 피니 – 종암 8경을 찾아서 49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이제는 역사가 되어 – 미아리 공동묘지 이야기 57
바라는 손님은 언제 오시나 – 이육사 이야기 67

2015년,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시도
딱딱한 학술회의는 이제, 끝났다고 전해라~ 76
광복 70주년 기념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80
갈 곳 잃은 우리네 인생을 담아 : 김광섭 탄생 110주년 성북천 깃발전 85

특집 3 | 5분 속에 담아 구운 성북동의 아름다움, 2015 성북골목극장에 가다 88

2015 역사문화탐방
봄(충남 서산·예산)
내포에 불어온 역사의 바람을 따라, 나에게 불어온 부처의 미소를 따라 94
가을(경기 여주·이천)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울이다 98

2015 성북문화원 소식
2015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103
2015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105
사진으로 보는 2015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112

2015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44
2015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46

발간사

『성북문화』 3호를 내며

2013년 창간한 『성북문화』가 어느덧 세 번째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북문화』가 세 번째 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화원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스한 양의 해가 되리라 기대했던 2015년은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급속도로 확산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가져다 준 불안감과 공포는 문화계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딛고 일어나 끝내 그러한 시련을 이겨낸 뜻깊은 한 해였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다재다능하며 역동적인 붉은 원숭이처럼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북문화원은 더욱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5년을 돌아보면 성북문화원은 한 해 동안 선잠제향과 만해 한용운 선사 71주기 다례재, '성북, 4 · 19혁명의 북을 울리다', '6 · 25전쟁과 미아리고개'와 같은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향토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토대로 한 '시선',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심우'등의 뮤





지컬을 기획 · 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동의 다양한 모습들을 단편영화로 제작하여 상영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북문화원 일련의 성과가 담겨있는『성북문화』3호를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따뜻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돌아오는 2016년 성북문화원은 보다 열정적으로, 보다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문화 및 향토문화의 연구·보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나아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지역문화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을미년 한 해, 성북문화원을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문화원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를 다 해준 성북문화원 직원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바라시는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북악산 중턱에서 바라본 성북구

축사

성북문화원의『성북문화』3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로 성북 지역문화의 기록과 보존에 보탬이 되어 온『성북문화』의 발간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성북문화』3호를 통해 성북구민의 밝고 열정적인 모습과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성북의 곳곳을 여러 사진과 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 한 해를 쉼 없이 달려온 성북문화원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되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북문화원은 매년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71주기를 맞아 다례재를 개최하였고, 그 밖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강연과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축제, 전시, 토크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풍성한 한해를 꾸렸습니다. 성북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성북문화원의 변함없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메르스 사태로 크나큰 우려와 함께 문화원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다해주신 성북문화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성북문화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북구청장 김영배



2013년 창간호로 시작된『성북문화』가 어느덧 3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성북문화』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적극 힘써주신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성북문화원은 우리 성북의 특색에 맞춘 다양한 문화 사업들과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구민 여러분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있으며, 성북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해나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성북문화』3호는 작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해온 여러 문화사업의 결과를 한데 엮은 성과물입니다. 이는 성북구 역사문화 자료의 수집·보존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구민을 향해 열어둔 훌륭한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성북문화』가 50호, 100호 발간을 향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특히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우리 성북문화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의미 있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



1990년대 초 미아리고개



우리옛돌박물관1층 입구

수복강녕과 길상, 그 바람을 담아

우리옛돌박물관

글 우리옛돌박물관 학예실 **사진** 우리옛돌박물관 제공

우리옛돌박물관은 2015년 11월 11일, 북악산과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성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옛돌박물관은 국내 · 외에 흩어져 있던 석조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건립한 국내 최초의 석조전문박물관으로 옛 돌조각에 담긴 수복강녕과 길상을 향한 선인들의 염원을 느끼고, 현재 우리의 소망도 기원하는 공간입니다.

전시구성은 1층 환수유물관, 2층 동자관, 벅수관, 자수관, 3층 기획전시관과 무병장수의 길, 돌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조유물뿐만 아니라 규방문화의 결정체인 자수 작품과 한국근현대회화 전시도 함께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 환수유물관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밀반출되었던 우리 석조유물을 되찾아와 전시한 공간입니다. 2001년 환수한 석조유물 70점 중 문인석 47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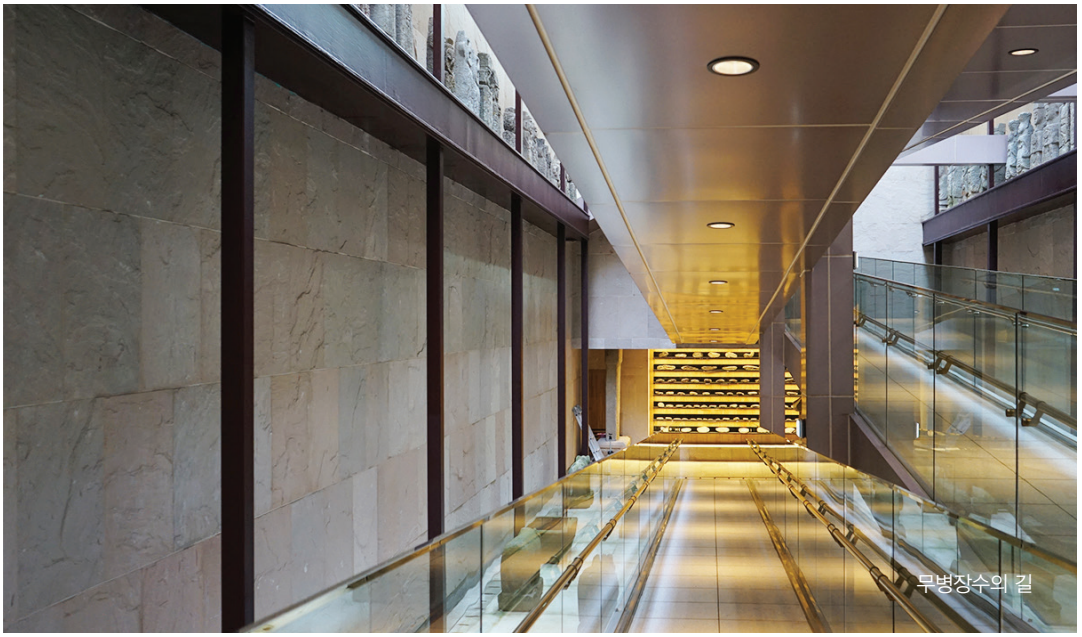
2층 동자관에는 무덤 앞에 세워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혼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동자석들을 모아 전시한 공간입니다. 동자관 한 쪽 면에는 소원의 벽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소원을 적어 꽂아 놓으면 동자석이 하늘로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수유물관


동자관


벅수관




무병장수의 길



오감만족

벅수관에는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벅수(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장승을 부르는 명칭)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벅수는 민초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해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수관은 자수베개, 보자기, 주머니, 바느질용구 등 전통 자수 작품을 통해 한국 여인의 삶을 조명합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가족의 수복강녕을 기원하던 옛 여인들의 정성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3층 기획전시관에서는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추상 · 구상 · 사이”전(展)을 기획하였습니다. 김종학, 김창열, 김환기, 남관, 변종하, 유영국, 이대원, 이우환 등 광복 이후 한국근현대미술의 부흥기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길은 길상의 공간으로 1층에서 4층 야외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250여점의 동자석과 벅수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환기, 《드로잉북》



김창렬, 《회귀》

돌의 정원은 관람객들이 휴식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북악산의 자연경관과 우리 옛 돌조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감만족, 제주도 푸른 밤, 마음의 정화, 염화미소, 목욕재계, 승승장구의 길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옛 돌조각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옛돌박물관은 해외로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조유물의 학술적 교류를 돕는 연구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신진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마련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박물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승승장구의 길

“돌에 담긴 다양한 색과 미소를 마주해보세요.”

우리옛돌박물관 천미전 학예실장을 만나다

Q : 우리옛돌박물관의 정식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옛돌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돌을 모아 박물관을 세운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 서울 근교에 우리 전통 석인상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 서울 최초로 돌에 관련된 박물관을 개관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있는 돌들을 한 데 모은 동기라면, 한 마디로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님의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돌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하나 둘씩 모으다보니 이를 한 데 모은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다른 박물관과 학자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처음 돌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욕심이 생기고 사랑과 관심이 커져 지금 우리옛돌박물관까지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Q : 여러 전시실 가운데 환수유물관이란 전시관이 눈에 띄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고 환수유물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A :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유물들이 일본으로 밀반출되었어요. 그 중에는 우리 능묘를 지켜왔던 문인석, 장군석, 석수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관심갖게 된 계기는, 이 사장님께서 인사동 나들이를 나가셨다가 우연히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돌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물들이 일본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에 화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



장군석을 바라보는 천미전 학예실장

어서 우리 문화재도 지키고, 민족의 자긍심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빼앗긴 유물들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일본의 한 수집가로부터 문인석, 장군석, 석수 등 70점을 환수하였고, 그 중 문인석 47점을 환수유물관에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유물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 그 외에도 벅수관, 자수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있는데 이 중 벅수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벅수란 경상 · 전라 지역에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부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지역처럼 장승을 나무를 깎아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들었어요. 그런 장승을 마을입구에 세워서 수호신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벅수들은 전문 석공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직접 돌을 다듬어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과 모양 등을 보이고 있고 때때로 익살스운 모습까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벅수들에게서 여러 가지 한국인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자수관은 어떤 공간인가요?

A : 이사장 사모님께서 자수품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30년 간 개인적으로 자수품들을 수



벽수관에서 전시 중인 벽수

"많은 분들이
돌과 그림이라는 형상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심상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집하여 고이 모아두곤 하셨는데요, 우리옛돌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이를 한 데 모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돌과 자수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돌도 한 정 한 정 정성껏 쪼아서 작품을 만들 듯 자수도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지었다는 점이 일치한다고 봐요. 자수관에는 이런 다양한 자수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아기자기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자수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마련했으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우리옛돌박물관 내 자수관

차와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Q : 전시관 중 기획전시관에는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관, 《푸른 공간》

A : 지금 기획전시관에는 '추상 · 구상 ·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돌도 하나의 돌로 추상에 불과했던 것이 사람 손에 의해 작품으로 탄생해서 구상이 되듯 그림도 추상과 구상, 그리고 그 사이에 심상을 찾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우환 작가의 <조응>, 남관 작가의 <푸른 공간>, 김환기 작가의 <드로잉 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있으니 많은 분들이 돌과 그림이라는 형상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심상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Q : 우리옛돌박물관에 소장된 수많은 유물들 중 애착이 가거나 관람객들이 꼭 보고 그 의미를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유물이 있나요?



장군상

A : 모든 유물 하나하나 다 애착이 가긴 하지만, 2층 로비에 전시되어진 장군상이 박물관 대표 유물이기도 하고, 나름의 애착이 가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는 유물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Q : 우리옛돌박물관 정식 개관은 11월이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2016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람객들에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인가요?

A : 먼저 직접 탁본을 떠보는 체험활동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마을 신앙이나 민속과 관련된 간단한 강의 프로그램, 그리고 수복강녕과 길상을 위한 돌탑 쌓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야외의 동자놀이터에서 즐기는 민속놀이, 동자부엌에서 방아찧기, 절구질하기, 맷돌돌리기 등 전통 요리기법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야외 공간을 정원처럼 꾸며놓아 고즈넉한 분위기 속 산책도 할 수 있답니다.



Q : 2016년 1월 4일부터 성북02번 마을버스의 노선이 우리옛돌박물관 앞까지 연장이 되었던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방문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홈페이지(http://www.koreanstonemuseum.com)를 참고하시면 운행 시간과 장소가 자세히 나와있어요. 혜화역 및 안국역에서 셔틀버스가 박물관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 저희가 1년 멤버십 프로그램(1년 멤버십 가입비 10,000원, 가입일부터 1년 간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의 돌은 날씨와 시간,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시간, 다른 계절에도 방문하셔서 관람을 해주시면 같은 유물도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 번 방문하셔서 돌의 다양한 색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과 강연 프로그램 또한 준비 중에 있으니 그것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사진** 우리옛돌박물관 제공



문화예술인 초대석 1

일생을 만해와 함께 걸어왔네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을 만나다

우리 고장 성북구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라면 누구나 떠오르는 단 한 분의 인물인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 선생. 이런 만해 한용운 선생이 좋아 일생을 만해 한용운 선생 연구에 몰두하였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만해기념관을 설립하여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이 있다. 바로 경기도박물관 관장 및 만해기념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전보삼 관장이다.

전보삼 관장은 1950년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화엄의 관점으로 본 만해사상 연구」로 박사학위(철학박사)를 수여했다. 이후 신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만해기념관을 설립하여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고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과 철학 세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박물관 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사)경기도박물관협회장,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장, (사)한국박물관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박물관 관장직에 임명되어 경기도박물관을 창의적 복합문화공간이자 '상상력 주유소'로 탈바꿈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을 만해와 함께 외길을 걸어온 전보삼 관장. 주말이면 늘 남한산성 안에 있는 만해기념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그를 찾아 만해 한용운 선생과 만해기념관, 그리고 성북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멀리서 바라본 눈덮인 만해기념관 전경

Q : 성북문화원에서는 현재 성북구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실제 성북구에서 지내오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구술자료로 축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일생을 만해 한용운 선생 연구에 힘써 오신 만큼,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심우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장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A :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 가까웠어요. 제가 태어난 강릉 시내 한복판에는 1922년 만들어진 강릉 포교당이란 절이 있었어요. 그 곳의 아주 넓은 마당이 우리한테는 놀이터였는데, 거기서 놀다 보니 자연히 스님들하고 자주 어울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정식으로 강릉 포교당 학생회에 입회를 했고, 활동을 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졌죠. 제가 반야심경을 잘 외웠지만 뜻은 잘 몰랐어요. 그 뜻을 알고 싶어 여기저기 물었지만 신통한 답은 못 들었죠. 그런데 강릉 포교당엔 객승들이 많았어요, 만행을 위하여 해제일 동안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며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이 머물렀어요. 저는 그런 스님들을 만나면서 바깥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지요. 색즉시공이 뭡니까? 공즉시색이 뭡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반야심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했지요. 제가 그 이전부터 옛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이죠? 그걸 좋아해서 초등학교에서 늘 담임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지루해지는 시간이 되면 나더러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이야기 같은 것들을 잘 했죠. 그렇게 6년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잖아요, 새로운 소재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책도 보고, 현장도 직접 가보고 하면서 지역의 설화·

민담·옛날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엔 스님이 열심히 설명해줘도 내가 이해를 잘 못했죠. 그런데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항의도 많이 했죠. 그래서 강릉 포교당에 가면 자꾸 질문하는 골치 아픈 학생이 있다는 소문도 크게 났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불교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Q : 자연스럽게 불교와 가까워지셨군요. 그렇다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A : 옛날에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서 설악산이나, 오대산으로 간다 하면 일단 강릉에서 하룻밤 묵어야 했어요. 서울에서 설악산으로, 오대산으로 직접 가는 길이 없었죠. 일단 강릉에서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자동차 편을 이용해야 했죠. 그래서 강릉 포교당에 늘 객승들이 드나드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어렸으니까 생활공간이 반경 4킬로미터를 넘지 않았고 그 이상 밖으로 나가보진 못했죠. 그 안에서만 매일 같은 사람과 만나 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재미가 없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좀 필요했죠. 항상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바로 객승들이었어요. 부산, 대구, 서울 얘기도 해주고 신기했죠. 저에게는 파랑새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게 한 196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객승들과 가까이 지내던 중에 어느 스님이 나한테 골치 아프게 자꾸 질문하지 말고 이거나 읽으라고 책을 하나 던져줬는데 그게 만해 한용운의 시집『님의 침묵』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육바라밀의 정신, 팔정도, 인과법,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논리,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님은 갔습니다.'그게 색즉시공이죠, 풀어보면. 모든 현상을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시집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읽었어요. 시를 줄줄 외우기도 하고요.



만해 한용운 흉상

그런데 1960년대 초에 불교계에 정화바람이 불어서 강릉 포교당이 어수선해졌어요. 객승만 왔다갔다 하고 고정된 스님이 없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았죠. 내가 학생회에 들어간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땐 부회장이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하는데 고정된 스님이 없으니까 빈 시간이 생기잖아요? 마침 지나가는 스님 있으면 붙잡고 얘기하는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대신 했어요. 그래서 불교 책이고 이런 걸 많이 사서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지

요. 그리고 방학 때는 인근 사찰과 오대산에 가서 공부도 했고요. 그러면서 불교 공부에 매진을 하면서 더더욱 만해의 시에 공감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에서 「보리수」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용운의 생애"에 대한 연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계속 한용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소개도 했어요. 그러던 중 1966년도 새 학기 고등학교 2학년 첫 국어시간 수업에 교과서를 탁 펴니 교과서 첫 페이지에 〈근대시초1〉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용운 얘기는 전보삼에게 들어보자고 얘기함으로 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국어 선생님을 대신하여 만해 일대기와 「알 수 없어요」라는 시에 담긴 불교적 내용들을 설명함으로써 주변 학생들을 놀라게 했죠. 그때 확신을 했어요. 서울에 가서 만해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1968년에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처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 당시 서울 가면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째가 심우장을 참배하는 것, 둘째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만해 묘소를 참배하는 것, 셋째가 삼청동 칠보사에 계신 만해 제자 강석주 스님을 찾아뵙는 것. 그래서 처음 심우장을 찾아가 보는데, 지금이야 시멘트로 다 복개를 했지만 그 당시엔 골짜기가 있고 다리가 놓여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찾아가보니 동국대학교 우정상 교수가 심우장에서 세 들어 살고 있더군요.

Q : 만해 한용운 선생의 따님 한영숙 여사는 당시 그 곳에 살고 계시지 않으셨군요?

A : 그 당시 한영숙 여사는 혜화동으로 거처를 옮긴 지 꽤 됐는데, 한영숙 여사가 동국대학교 교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정상 교수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우정상 교수 다음으로는 지현이네 라는 가족이 7~8년 정도 세를 살았고요. 그때 가서 그 가족의 전세금 문제들을 제가 처리해주고 81년대부터 심우장에서 만해기념관 운동을 하였죠. 그러면서 성북동에 계시던 일창 유치웅 선생께 현판 글씨를 부탁드렸어요, 그 까닭은 일창 선생님의 선친인 우당 유창환 선생님과 만해와의 관계를 설명 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셨어요. "심우장"이란 액자도 제작해 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우장 관리를 하게 된 거죠.

Q : 그렇군요. 당시 심우장과 지금의 심우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A :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앞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마당이 100여 평에 이를 정도였죠. 그래서 시 낭송회 같은 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관리하다보니 금전적인 문제에 너무 시달렸어요. 만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해서 『한용운 사상 연구』란 책도 내고, 『한용운 전집』을 판매한 돈으로 심우장 관리를 했는데 태부족이었어요.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도 만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걸고 했는데 돈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는 마음가짐으로 버텼죠. 망우리 만해 한용운 묘소에 국가보훈처 예산, 한영숙 여사 사비, 내 사비 모아서 묘비도 세웠고요.

앞서도 말했듯 심우장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시낭송회, 워크숍, 매년 제사 올리고.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 위치가 안 좋잖아요, 교통도 나쁘고, 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혼자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는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이 집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유지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문화재 등록신청을 서울시에 했는데 바로 거절당했어요. 개인이 살던 집을 문화재로 지정한 전례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청하니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사해서 통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문위원들이 건축, 한옥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눈에 1933년에 만들어진 이 작고 허름한 집의 가치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계속 서울시하고 논쟁을 벌였죠. 한 3년 쯤 그렇게 외롭게 투쟁을 하니 결국 서울시에서 백기를 들었어요. 1984년 7월에 심우장이 서울시 기념물 제 7호로 결정이 된 거죠. 개인이 살던 집을 문화재로 지정받은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 뒤에도 쭉 성북동에 살면서 심우장 관리를 했죠.

Q : 그럼 계속 성북동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신 거군요. 심우장 관리는 언제까지 하셨던 것인지요?

A : 그렇죠. 낮에는 주로 심우장 관리를 했고 저녁에는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며 지냈어요. 거의 심우장 관리가 본업이고, 교사는 부업과도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영숙 여사의 혜화동 집이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당장 살 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심우장 마당에 2층 집을 짓겠다고 하니 선혜스님이란 분이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중재안으로 성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단층집으로, 그리고 정면 반만 가리는 집을 하나 짓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집과 인연이 다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우장을 떠났죠. 그 뒤에 어디로 가야되나 고민하면서 이 곳 저 곳 생각



만해기념관 내부

하다가 남한산성에 자리를 잡았죠. 이때가 1990년이에요.

Q : 그렇군요. 지금은 심우장을 성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영숙 여사가 살던 집은 관리동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헐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됐는지요?

A : 한영숙 여사가 집을 짓고 거주를 하다 보니 살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국가가 적절히 보상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했어요. 그 당시 성북구엔 진영호 구청장이 있었는데 이 분이 시도 좋아하고, 만해를 이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영숙 여사한테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집을 서울시와 성북구의 예산으로 매입했죠. 관리는 성북구청에서 하기로 하고요.

Q : 그럼 심우장 계실 때부터 다례재는 직접 지내신 건가요?

A : 당연하죠. 제가 설립한 만해사상연구회와 만해기념관 주관으로 지냈죠. 그리고 칠보사에 계신 만해 제자로 유명한 강석주 스님께서 직접 준비부터 집전까지 다 해주셨고요. 강석주 스님은 그 전에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을 지을 때도 개토제부터 준공, 개관까지 다 신경 써 주셨어요. 참으로 고마운 어른이었어요.

Q : 그렇다면 지금 관장으로 계신 만해기념관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A : 만해기념관은 심우장에서 옮겨온 당시, 그러니까 1990년에는 무엇을 새로 지을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자금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집 하나를 전세 내어 임시 기념관을 개관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토지 520평을 매입하고 1997년 3월에 만해기념관 건립 공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1998년 5월에 완성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Q : 주제를 조금 바꿔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심우장에 계실 땐 어떻게 생활하셨고, 그때의 심우장은 어땠는지 들려주신다면?

A : 집 구조는 지금하고 같은데요, 만해는 사랑방에 기거하셨죠. 그 당시 장서는 불경 등 포함해서 100권 정도 되고요, 제자나 만해를 좋아하던 지인들인 권동진, 유창환, 안종원 등이 서예작품이나 서화, 현판 등을 써서 갖다 준 게 있었죠. 오세창 선생께서는 "심우장"이란 현판을 써주신 것이 그 중 하나고요. 지금은 없어진 것이 많아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심우장에 얽힌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린다면, 당시 심우장이 지어질 때 북향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만해 선생이 총독부를 보기 싫어서 이렇게 지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만해 선생은 겨울에도 불을 때지 않고 지내셨어요. 조선이 일제에 강점되어 내내 차가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불을 땔 수 있겠느냐면서요. 그러면서도 힘겨운 청년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격려도 많이 해줬고요.



조선의 마지막 혼을 지켰던 마지막 땅, 심우장 전경

Q : 만해 선생에게 따뜻한 면도 있었네요. 한없이 냉철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성격이셨는지요?

A : 한 마디로 칼날 같은 분이죠. 만해 선생의 말씀 중에 "고난의 칼날에 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말고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고난의 칼날을 밟는다는 존재의 통쾌함을 맛보라고 하셨죠. 무엇이든 성공과 실패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만을 좇는 자들에게는 서슬 퍼런 분이었고,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었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처럼 변절한 자들은 심우장엔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또 만해 선생이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진 않았어요. 다만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주의를 질타한 거예요. 일본은 평화로운 일본의 길, 조선은 평화로운 조선의 길을 가며 공존, 공영하여야 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야 아시아 전체가 평화, 나아가 세계 각국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봤던 거고요. 나라마다의 역할을 강조하였어요. 만해사상은 절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Q : 만해 선생이 1933년부터 1944년에 입적하실 때까지 지냈던 심우장이라는 공간과 만해라는 분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우리의 영토가 다 없어지고 왜놈들 발 아래 짓밟혔을 때, 성북동 백열세 평의 땅 심우장은 민족의 자존을 지켰던 조선의 땅이었어요. 조선의 마지막 혼을 지켰던 마지막 땅이에요, 독립정신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만해 한용운을 더 깊게 알게 된 시 '알 수 없어요'와 전보삼 관장

Q : 심우장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붙여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A :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한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빗대어 그린 '십우도(十牛圖)'라는 그림이 있어요. 총 열 개의 그림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장 첫 째가 '심우'지요. '십우도'를 '심우도'라고도 하고요. 불교에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란 말이 있어요.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는 처음 마음먹은 그 곳, 그게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심우라는 것은 마음을 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어찌 보면 근원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Q : 관장님께서 쓰신 박사논문과 그 밖의 논문을 보면 독창적인 생각이 쓰여 있던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만해를 근본적인, 근원적인 자리에서 바라본 거예요. 보통 '님의 침묵'이라 하면 다들 '님'이 누군가만 따져요. 하지만 그 속에 님은 없어요. 님은 침묵의 의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은 뭐냐면, 이는 곧 열반의 세계, 적정의 세계,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예요. 불교에 '적멸(寂滅), 적정(寂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만해는 침묵이라는 쉬운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열반적정의 세계인 거죠.

Q : 그렇다면 만해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A : 독립운동가 한용운을 찾다보면 어느 사이에 시인 한용운이 떠오르죠, 시인 한용운을 찾다보

> “보통 ‘님의 침묵’이라 하면 다들 ‘님’이 누군가만 따져요. 하지만 그 속에 님은 없어요. 님은 침묵의 의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은 뭐냐면, 이는 곧 열반의 세계, 적정의 세계,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예요.

면 어느 사이에 또 철학자 한용운이 떠올라요, 그리고 철학자 한용운을 보다보면 또 어느 사이 독립운동가 한용운이 다시 떠오르죠. 어느 것 하나에 메여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바로 ‘중정(中正)의 도(道)’라고 얘기해요. 만해는 이 ‘중정의 도’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Q : 그렇다면 지금 복잡해진 한국 사회에서 만해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만해는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봐요.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만해와 같은 큰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는 것도 안타깝죠. 이런 면에서 다들 좀 거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깊은 자기 성찰과 혜안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해요.

Q : 그럼 앞으로 만해기념관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A : 지금 19년째 만해학교를 해오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분기별 4회로 확대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육관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 인문학 강좌를 열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Q : 마지막으로, 심우장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A :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살던 집을 가지고 문화재로 만든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심우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근처 집을 매입해서 부지도 넓게 트고, 거기에 연구소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뜻을 세운 자가 복원정비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된 거예요. 경기도지사를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서, 주변 개인 땅 36,000평을 사들여 11년간 남한산성과 행궁을 복원정비를 했죠. 그래서 2014년 6월 세계유산에 지정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심우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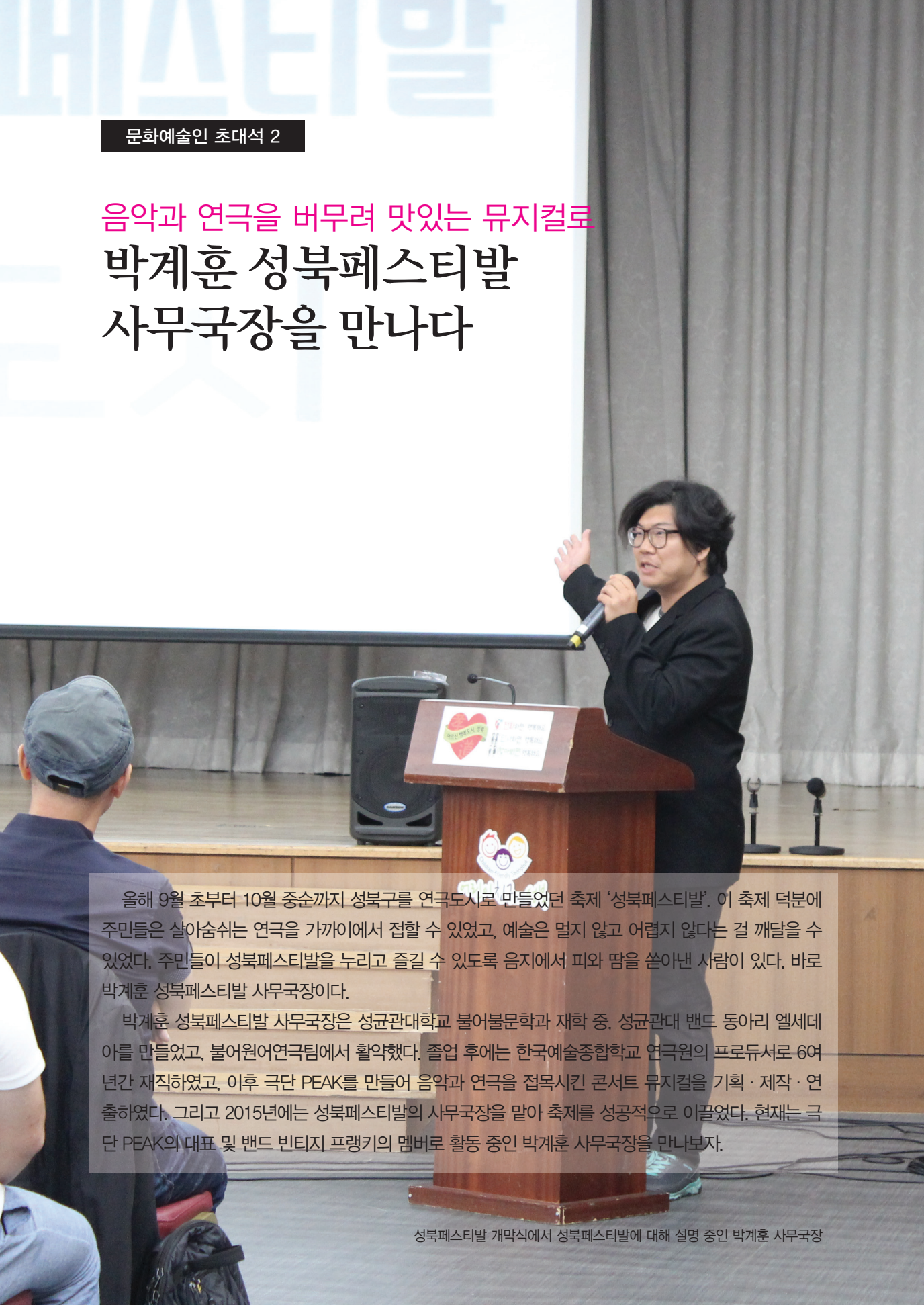
Q : 관장님 말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삶과 사상에 대한 관장님의 이해가 참으로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님의 침묵』도 다시 찬찬히 읽어 봐야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 박수진 ·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문화예술인 초대석 2

음악과 연극을 버무려 맛있는 뮤지컬로

박계훈 성북페스티발 사무국장을 만나다



올해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성북구를 연극도시로 만들었던 축제 '성북페스티발'. 이 축제 덕분에 주민들은 살아숨쉬는 연극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고, 예술은 멀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성북페스티발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음지에서 피와 땀을 쏟아낸 사람이 있다. 바로 박계훈 성북페스티발 사무국장이다.

박계훈 성북페스티발 사무국장은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재학 중, 성균관대 밴드 동아리 엘세데아를 만들었고, 불어원어연극팀에서 활약했다. 졸업 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프로듀서로 6여 년간 재직하였고, 이후 극단 PEAK를 만들어 음악과 연극을 접목시킨 콘서트 뮤지컬을 기획 · 제작 · 연출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성북페스티발의 사무국장을 맡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극단 PEAK의 대표 및 밴드 빈티지 프랭키의 멤버로 활동 중인 박계훈 사무국장을 만나보자.

성북페스티발 개막식에서 성북페스티발에 대해 설명 중인 박계훈 사무국장

Q :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됐는지 이유나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KBS원주 FM라디오 클래식 음악 해설가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저희 집엔 원주 지역의 예술가 분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죠. 아무래도 집 분위기가 그러하니 저도 자연스레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밴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하고, 밴드 음악을 하기 위해 엘세데아라는 밴드를 만들었죠. 학과 내에서는 불어원어연극팀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밴드와 연극 활동을 하다보니 음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향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다보니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사운드체크라는 대학생 벤처 회사를 차려서 운영도 했죠. 그 당시 수입도 조금 괜찮아서 회사도 점차 커갔는데 그 와중에 행사를 진행해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한 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음향장비 다 팔아서 빚 청산하고 회사는 문 닫게 됐죠. 그러고나서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연극원 공연기획실 프로듀서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연극,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듀서로 재직하다보니 특히 전체적 제작·기획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됐죠. 그 뒤에 한예종 연극원 공연기획실을 나와서 극단 PEAK를 만들었고,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집약한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를 제작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때 감독도 하고 음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심지어 배우까지 했죠. 그러면서 극단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Q : 대학생 시절 밴드활동과 연극팀 활동하면서 음악에서 연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음악과 연극을 접목시키기까지 하신 거네요.

A : 사실 학과 불어원어연극팀은 연극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학과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좋았던 거죠.

Q : 그렇다면 연극에 관심을 두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 제가 한예종 연극원 공연기획팀 프로듀서로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해 12월에 괜찮은 작품 세 가지를 뽑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선정된 작품들이 「김종욱 찾기」, 「쑥부쟁이」, 「거울공주 평강이야기」였어요. 다 한예종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었는데, 그 작품들을 보고 공부를 더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연극을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한예종 정직원이 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죠. 매일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어요. 한예종에 연극 공연장이 세 개가 있는데, 매 학기 공연이 꽉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업무를 했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죠. 그때는 그래도 처음엔 교수, 학생 너나할 거 없이 같이 어울려 술도 마시고 재미있었는데, 작품을 한 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안정적 생활이냐 아니면 내 꿈



이냐. 그 상황에서 제게는 좀 더 모험적인 삶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한예종을 그만두고 극단 PEAK를 만들고, 「피크를 던져라」라는 작품을 세상에 던졌죠.

Q : 그러면 한예종을 나오면서 극단 PEAK를 만들었는데, 이 극단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A : 한예종 연기과 06~07학번 학생들하고 의기투합해서 만든 극단이에요. 함께 콘서트 뮤지컬을 극단의 아이덴티티로 잡았고,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포맷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악기 실전훈련이 필요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콘서트도 진행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그때 멤버들 대부분이 흩어졌어요. 영화 분야로도 가고, 사업하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다 흩어졌죠.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가 한필수 씨입니다. 그래서 현재 극단 PEAK의 정식 멤버는 나랑 한필수 씨 두 명이에요.

Q : 그럼 밴드 빈티지 프랭키는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A : 두 명이서 극단 PEAK에서 음악 작업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작업하다보니 뮤지컬OST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하고 싶은 음악 작업을 따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일치했죠. 그래서 2015년 1월에 빈티지 프랭키라는 이름의 밴드를 한필수 씨와 함께 만들었고, 홈레코딩으로 앨범

> “ 성북페스티발이라는 축제명은 에딘버러나 아비뇽처럼 지역이름을 딴 페스티발에 착안해서 정했죠. 성북구는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가 옆에 있음에도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어요. 대신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미아리고개, 돈암동, 삼선교까지의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작업을 해나갔죠. 그렇게 곡 작업에 2개월 정도 몰두하다가 제2회 성북페스티발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앨범 작업은 잠시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도 밴드 음악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쩌다 인연이 닿아 알게 된 드러머 전보형 씨, 기타리스트 민선재 씨 두 분과 뜻이 맞아서 나중에라도 본격적으로 뭉쳐서 밴드 활동을 하자고 약속해둔 상황이죠.

Q : 40일 가량 진행된 제2회 성북페스티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성북페스티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제2회 성북페스티발은 작년에 열렸던 1회 성북연극제의 2회 개념이에요. 성북연극협회에서 주최를 한 거죠. 저는 빈티지 프랭키 앨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극단 초인의 박정의 대표가 2회 성북연극제를 함께 해보자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작년에는 4일 남짓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40일에 실질적으로 ‘마실’ 프로그램을 7월부터 진행했고, 그밖에 지역 축제들까지 같이 성북페스티발 사무국에서 진행을 했어요. 성북페스티발은 성북연극협회가 주최하는 거였지만 연극만이 아닌 모든 예술이 담긴, 구 단위 자치단체에서 하는 멀티 페스티발로는 실질적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성북페스티발이라는 축제명은, 예컨대 에딘버러나 아비뇽처럼 지역이름을 딴 페스티발이, 그대로 세계적인 페스티발로 자리 잡았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성북페스티발이라 정했죠. 사실 성북구는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가 옆에 있음에도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희한한 구조예요. 대신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미아리고개, 돈암동, 삼선교까지의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획력, 노하우를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Q :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무국 분들이 인원은 적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그런 면에서 질문 드릴게요. 성북페스티발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그리고 다음 성북페스티발은 어떤 모습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A : 아무래도 성북연극협회의 멤버들이 연극하시는 순수예술인이다보니, 비즈니스적인 면이 약한 부분이 많았고, 그보다 다들 너무 바빠요. 사무국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필수 씨가 있고 나중

에 김화진 씨, 안정주 씨가 합류해서 함께 했는데, 그밖의 분들은 본인 활동하면서 하시니까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번 제2회 성북페스티발에서 4명의 사무국 인원으로 기적적으로 행사를 마쳤는데, 이를 통해서 사무국의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행사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성북연극협회와 성북페스티발 사무국하고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성북연극협회가 주최자이긴 하지만 성북페스티발을 직접 이끌어가는 사무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사무국장으로는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분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극인들,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일 잘 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들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다음 성북페스티발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완전히 기반을 잡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성북구라는 지역에 워낙 연극인들도 많고, 극단도 많고, 예술가들도 많으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펼치는 데 더욱 좋은 공간과 지형적 여건을 갖춘 곳은 없으니까요.

Q : 이번에 제2회 성북페스티발 프로그램 중 인상깊었던 것이 바로 '마실'입니다.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매주 토요일 음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는 등 참 신선하게 느꼈는데 이 '마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요?

A : 제2회 성북페스티발 홍보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신문, 방송 등의 홍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도구로 처음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삼선교 분수마루를 떠올린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가급적 돈이 덜 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다보니 사무국에서 음향, 조명, 내용 등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결정한 거죠. 이런 의도로 시작하게 됐는데, 차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엔 성북문화원의 큰 지원과 협조가 크게 작용했었죠. 하하.

Q : '마실'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정팬들이 꽤 있던데요.

A : 많이 놀랐어요. 작은 마실 형식으로 공연할 때나, 성북문화원 행사할 때 공연하고 있으면 지나가시던 분들이 한필수 씨 노래부르는 거 보고 자리잡고 앉아서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때 여기에 오면 빈티지 프랭키라는 밴드가 공연을 한다는 인식도 생긴 것 같고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Q : 올해 '마실'에는 빈티지 프랭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팀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제일 좋았거나 기억에 남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A :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버스킹 팀, 밴드 같은 많은 팀이 있지만, 성북문화원의 선소리산타령 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연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박계훈 사무국장이 이끄는 밴드 빈티지 프랭키.
좌측부터 박계훈 사무국장(베이스), 민선재(기타), 한필수(보컬), 전보형(드럼).

서 따라 부르고 춤추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친화적 공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우리는 항상 젊은 프로그램 중심의 기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 내년 '마실'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드컬쳐라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제3세계 음악공연을 하는 팀과도 접촉하고 있어요.

Q : 2015년 한해 동안 성북문화원과도 다례재, 성북동 포럼, 학술회의 등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성북문화원과 하셨을 때 다른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 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 성북문화원과 함께 하면, 사실 따지고보면 갑과 을의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문화원과 함께 하면 그냥 한 식구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같이 하니까 심적으로도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년엔 성북문화원을 위해 더 신경을 제대로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내려고 해요.

Q : 성북문화원과 함께 행사했던 것 중 만해 다례재에서 한용운 선생님의 시에 곡을 붙여 불렀던 것이나, 학술회의 때 앞에 앉은 6.25 참전용사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노래를 불렀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의 한 장면.
가장 우측이 박계훈 사무국장이다.

요. 지역에 있는 인물들과 사건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거나 이를 주제로 공연을 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A : 한필수 씨가 다례재 때 한용운의「나의 꿈」이란 시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멜로디도 멜로디대로 좋았지만 여기에 한용운 선생님의 좋은 시가 가사로 쓰여지니 그게 어우러져서 참 좋더라고요. 이후에 또 김기택 시인의 시「불룩한 자루」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빈티지 프랭키는 한 4월 정도에 정규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성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소재로 꾸릴까 해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도 있고, 김기택 시인의 시도 있고, 그밖에 예를 들자면 북정마을에 가서 북정마을에 대한 노래를 쓴다든지, 등등의 많은 소재가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노래들을 수록할 예정이죠. 모든 노래의 주제와 소재를 다 성북구에 있는 기반에 어떤 걸로 한다면 성북구에선 불러주지 않을까요? 하하.

Q : 저희가 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례재 때가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하하.

A : 아전인수 아닙니다. 그게 아주 절대적이었죠. 하하. 그때 그렇게 한 뒤로도 함께 일하면서 밴드 공연과 기획이 늘어나고, 앨범 구상에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또 소재적인 측면에서 성북구가 워낙 좋은 이야기거리와 상황들이 많은데, 성북문화원에서 많이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 : 성북문화원과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혹시 내년에 성북문화원과 같이 하고픈 일이 있는지요?

A : 저는 성북문화원하고 우리 극단 차원에서는 작품을, 연극이건 뮤지컬이건 음악극이건 작품을 같이 해보고싶어요. 왜냐면 문화원에서 성북구의 수많은 향토문화 소재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재와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야 어떤 문화컨텐츠를 개발하는 쪽이니까, 그런 문화컨텐츠 개발에 성북문화원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발맞춰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 이번엔 질문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밴드 활동도 하셨지만 연극인으로도 지내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연극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얼마 전 성북구에서 안타깝게 생활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는데.

A : 예술 노동이 우리나라에 맞을까요? 예술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수많은 전문가들, 이론가들도 아직 정립하지 못했어요. 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진정 예술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고요.

저는 한예종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딱 10년만 버텨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낙향하자는 다짐을 했어요. 지금 어느덧 8년이 됐는데, 아직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겠죠. 하하.

그런데 흔히 예술을 한다, 연극을 한다, 연기를 한다고 하면 다들 너무 짧게 봐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스타가 될 것 같고, 바로 TV, 극장에서 연기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들 너무 쉽게 뛰어들고, 너무 쉽게 뛰어드는데 국가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금방 관두는 거예요. 물론 힘겹게 버텨온 친구들도 있지만, 이들도 결국엔 남는 게 없어 좌절하게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술이라는 것의 개념이나 기초적인 수준은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현금 주고 생활비 지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공간, 즉 연습실이나 공연장, 생활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삼선동에 연극인의 집이 생겼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건만 마련된다면 좋은 배우들,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한 이쪽으로 발을 들이려는 분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과정의 힘듦은 좀 즐기면서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Q : 마지막 하신 말씀은 연극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군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구청, 문화원, 문화재단 등의 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A : 예컨대, 돈이 없어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한예종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기획하면 20만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이 20만원으로도 충분히 공연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엔 학교에 있는 연습장, 극장에서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연극과, 극작과, 연출과, 연기과, 예술경영, 무대미술과 친구들이 모여서 협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술인들이 별도의 일을 하더라도 생활비 외에 다른 지출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버텨서 남고 더 풍요로운 작품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즉, 성북구에 많은 극단들이 있지만 연습실, 공연장이 없어서 뭔가를 펼칠 수가 없거든요. 단원들이 돈 모아서 연습실비 내고, 극장비 내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연습실이나 극장을 불과 보름만 써도 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려서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컨대 한 30평 되는 공간에 음향·조명 설치해놓고 일주일에 한 팀씩 해도 성북구에 있는 수십 개 극단을 공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실도 20평 정도 공간으로 마련해서 순서대로 쓰게 한다든지. 이번에 활동하면서 보니 곳곳에 시간대별 빈 공간이 상당수 있더군요. 그런 공간을 연극인들에게 연습실로 사용 가능하게끔 해줘도 굉장히 상황이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생활비를 지원하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 빈 공간을 연습실 ·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 생각해보면 연극에 쓰이는 의상과 소품 등을 구비해 두고 무료로 대여해주어서 기획과 실제 공연 외에 지출이 없게끔만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 : 그게 연극협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품을 마치고 나면 무수히 많은 도구와 무대와 소품과 의상들을 어디 그냥 쌓아둬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요즘 공유가 핵심 패러다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 편하게 문화원도 좋고, 연극하시는 분들도 좋고, 성북구민들에게도 좋고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편하게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A : 지금은 지방의 문화예술이 그렇게 펼쳐들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극장에 뮤지컬 하나 올린다고 한들, 그걸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이 전국의 모든 집에서 TV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컨대 팟캐스트라든지 스마트폰 등의 매체와 연결해서 지역에,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주된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북구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요. 모든 단체들이 열성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활동하기 가장 좋고 행복한 지역이 성북구라고 할 수



무더운 여름의 토요일 오후,
'마실'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 · 친구 · 연인과 함께 하고있다.

있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때 성북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수준도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예술인들, 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친화적인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극단 PEAK, 밴드 빈티지 프랭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2016년, 개인적으로나 극단 PEAK, 빈티지 프랭키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극단 PEAK에서는 현재까지 뮤지컬 세 작품을 제작했어요. 「피크를 던져라」, 「솔솔이와 고양이 슈퍼밴드」, 「서로를 연주해줄 때」 이렇게 세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2016년도에는 「돌쇠들」이라는 조선시대 사극 뮤지컬을 제작 기획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작품도 꾸준히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공연을 할 것이고요. 빈티지 프랭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앨범 발매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빈티지 프랭키 차원에서 올해도 '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성북문화원과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현재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 시민극장으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부터 뽕짝중창단이라는 단체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데 곧 앨범이 나와요. 지역 마을 단위의 어머니들 중창단으로써 앨범작업은 최초인 것 같아요. 아마도 기념비적인 앨범이 될 것 같은데 이 앨범이 나오면 뽕짝중창단의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중창단 분들과 함께 공연도 많이 다닐 계획입니다.



박계훈 사무국장이 2016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Q : 내년이 한예종에서 나온 지 9년째 되시는 거죠? 10년째까지 꼭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

A : 제가 아까 낙원상가에 악기를 보러 갔다가 탑골공원 앞에 사주, 관상 보는 집들이 쭉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2016년 운세 한 번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2015년으로 삼재가 끝나고, 사주에 여자가 들어와 있대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여자도 사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하다, 라는 아주 희망적인 점이었죠. 하하.

Q :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즐거운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16년 한 해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점 보신 결과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하.

진행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6·25전쟁과 1950년대의 대중가요

글 이준희(성공회대 외래교수)

1. 대중가요로 본 전쟁의 전조

전쟁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이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삼팔선을 사이에 둔 남북의 대립과 충돌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쟁은 분단에서 비롯되었고, 분단은 이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족사에 전례가 없던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국면은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대중가요 또한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다. 6 · 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대중가요에서는 이미 비극적인 전쟁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많은 대중가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인적 토대에 큰 손실이 생겼고, 삼팔선 이북 시장의 상실로 물적 토대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우려하는 동시에 예고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대표 작사가 조명암
(본명 조영출, 1913~1993)
1948년 월북하여 북한 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분단이 광복과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에 가수 왕수복, 선우일선 등 1945년 8월 당시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은 자연히 남쪽 대중가요계와 단절되었다. 또 분단 직후부터 적지 않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택했다. 북한 지역이 고향이었던 작곡가 이면상과 작사가 박영호는 각각 1945년, 1946년에 서울에서 사라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바로 뒤를 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으로 남북 분단이 고착된 이후에는 박영호와 함께 일제시대 대표적인 작사가로 활동했던 조명암이 1948년 연말에 월북했다. 비교적 일찍 북한으로 간

박영호와 달리 조명암은 해방공간에서도 대중가요 가사나 악극 창작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므로, 그의 월북이 남긴 파장은 최근까지도 그가 남긴 작품의 무단 개작에 대한 시비 등으로 남아 있다. 1935년에 실시된 최초의 가수 인기투표에서 당당 1위로 선정되었을 만큼 당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인기가 높았던 채규엽도 비슷한 시기에 월북을 택했다.

인적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의 상실이었다.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남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인적인 손실은 당시 대중가요계에 치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었으나, 시장의 상실로 인한 문제는 당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1945년 이전 한국 대중가요의 소비 시장은 의외로 넓은 편이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한국인이 대규모로 거주했던 일본과 만주에서도 대중가요 음반이 판매되고 악극단들의 공연이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해방과 분단은 그러한 시장의 판도를 조각조각 나눠 놓았다. 삼팔선 이북이 떨어져 나갔고, 북한 지역을 거쳐야만 육로 통행이 가능한 만주도 마찬가지였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국제적인 냉전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되어 만주 시장의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일본 또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이 늦춰졌던 탓에 공식적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로 보아 대략 3천만 명 규모에 달했던 1945년 이전 한국 대중가요 시장이 분단 뒤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다. 단순한 머릿수 계산에 더해 경제 수준과 구매력을 감안하면 시장의 축소 폭은 그보다 더 컸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단은 대중가요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분단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린 경우가 있고, 그와 다르게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한 경우도 있다. <가거라 삼팔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여수 야화>, <흘겨본 삼팔선> 등 가수 남인수가 발표한 일련의 곡들이 전자에 해당하는 예인데, <여수 야화> 같은 경우는 여순사건에 대해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시각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발매 직후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반면, 1949년에 정부와 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무대에 오른 '반공악극'<육탄 십용사>의 주제가는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이 가사를 쓴 <육탄 십용사> 주제가는 6 · 25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던 삼팔선 부근의 남북 무력 충돌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당시만 해도 삼팔선 이남이었던 개성 외곽 송악산 고지를 북한군이 점령하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군이 육탄 공격을 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이 된 군인들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둘기고지에는 초목도 운다
적탄이 비 오는 듯 아군의 용전
들었나 포연 속에 격분의 얼굴
서 상사는 원합니다 특별공격을

부대장을 울려 주는 애원의 소리
장하다 우리 용사 아 십용사
<육탄 십용사 유엔고지 용전가> 1절 (이영순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49년)

남인수가 직접 운영한 음반회사를 통해 발표한 <달도 하나 해도 하나>는 분단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역시 남북의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의 묘사를 하고 있다. 당시 남인수는 분단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노래를 다른 가수들에 비해 유독 많이 불렀는데, 이는 어쩌면 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의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남인수의 친형이 모종의 사건으로 월북을 택하는 바람에, 그 자신도 분단으로 인한 이산을 경험했던 것이다. '하나'임을 특히 강조하는 노래 가사는 한편으로 '울부짖는 군호 소리'를 언급하며 전쟁의 조짐을 불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사랑도 하나
이 나라에 바친 마음 그도 하나이련만
하물며 조국이야 둘이 있을까 보냐
모두야 우리들은 단군의 자손

물도 하나 배도 하나 산천도 하나
삼천리에 뻗친 혈맥 그도 하나이련만
하물며 민족이야 둘이 있을까 보냐
모두야 이 겨레의 젊은 사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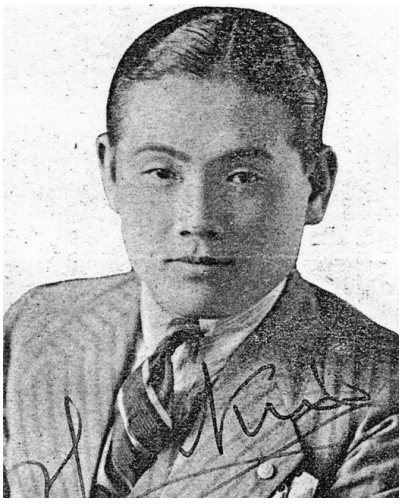
간 길 하나 온 길 하나 갈 길도 하나
울부짖는 군호 소리 그도 하나이련만
하물며 생사인들 둘이 있을까 보냐
모두야 새 나라의 용감한 일꾼
<달도 하나 해도 하나>
(김건 작사, 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1949년)


가수 남인수
(본명 강문수, 1918~1962).
〈애수의 소야곡〉, 〈가거라 삼팔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 전시 대중가요의 전개

조짐이 있었다고는 해도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이었기에, 광복 이후의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며 그나마 조금씩 안정을 찾아 가고 있던 대중가요계는 순식간에 다시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1945년 이전 대중가요가 식민지 음반산업의 굴레에 갇혀 생산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탓에, 광복 이후 최초의 국산 음반이 제작된 때는 만 2년이 지난 1947년 8월이었다. 이후 약 3년 동안 조금씩 발전하고 있던 신생 음반산업이 전쟁으로 인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음반을 대신해 대중가요 유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악극 중심의 무대 공연 역시 기반 시설 파괴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전시 대중가요계의 비극은 역시 또 인적인 손실이었다.

분단으로 인한 인적 손실에 이어 전쟁 기간 동안에도 많은 대중가요인들이 희생되거나 남한 대중가요계에서 사라졌다. 그 중에는 흔히 알려진 납북이나 월북도 있지만, 그밖에 북한군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떠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피난을 한 사람들도 공연단체가 와해되고 무대가 사라지고 음반회사가 대부분 문을 닫는 바람에 상당수가 한동안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쟁에 희생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은 지금도 천재적인 음악가로 회자되고 있는 작곡가 김해송이다. 가수 이난영의 남편이기도 했던, 따라서 그 유명한 김시스터즈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김해송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있다가 연행되어 미아리고개를 넘어 북으로 끌려갔다.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얼마 가지 않아 미국의 공습에 희생된 것으로 전한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김해송과 함께 끌려간 트럼펫 연주자 현경섭 등은 그대로 납북 인사가 되고 말았고, <진주라 천리 길>로 유명한 가수 이규남은 퇴각하는 북한군과 함께 북으로 가서 이후 오랫동안 월북 인사로 분류되어 금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북한군의 서울 점령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협력을 했던 가수 계수남은 서울 수복 이후 부역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은 뒤 오랜 세월 복역을 하다 겨우 풀려날 수 있었고, <목포의 눈물> 등의 인기곡을 발표해 정상급 작곡가로 활동했던 손목인은 전쟁 도중 일본으로 떠나 5년 세월이 지난 뒤에야 돌아오기도 했다.



가수 겸 작곡가 김해송
(본명 김송규, 1910~미상)
〈연락선은 떠난다〉, 〈오빠는 풍각쟁이〉 등의 곡을 남겼다. 납북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시 대중가요계가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전쟁이 1년을 넘기고 고착된 전선의 국지전 형태로 전황이 바뀌면서, 대중가요도 조금씩 다시 후방에

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시 후방의 대중가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남 지역 음반 회사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천만 다행으로 전쟁 전에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 설립되어 음반 발매를 시작한 코로나레코드와 오리엔트레코드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타 음반회사들이 전쟁으로 모두 사라지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것과는 달리, 거의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모든 자원이 영남 지역으로 집중된 덕에, 코로나레코드는 설비를 확충할 수 있었고 오리엔트레코드의 경우는 전시에 일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1952년 무렵에는 부산에서 도미도레코드가 또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했고, 그밖에도 전시 또는 휴전 직후에 승리레코드, 유니온레코드, 서라벌레코드, 태평레코드 등이 영남 지역에서 등장했다.

음반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전시에 적응한 특징적인 변화도 생겼다. 서울에 있는 극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시수도 부산의 극장이 공연 무대의 중심이 되었는데, 전시 무대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공연단체 가운데 하나가 '눈물의 여왕' 전옥이 이끄는 백조가극단이었다. 전쟁 전에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했던 백조가극단이 이때 급속히 부상한 이유는, 무엇보다 납북 도중 희생된 김해송이 이끌었던 K.P.K악단 같은 기존 유력 단체가 사실상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일제시대부터 상연되어 온 묵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전옥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에 의지해 계속 무대에 오른 <항구의 일야>, <눈 내리는 밤> 같은 통속적인 신파 비극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중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백조가극단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세밀한 기획과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대형 악극이 전시에 예전과 같이 제대로 제작되지 못하고, 대신 보다 손쉽고 가벼운 기획의 공연이 무대를 차지했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대형 악극이 휴전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계속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악극 퇴조의 단초가 이미 전시에 나타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조가극단

그리고 전시 무대 공연의 특징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군예대의 활동이다. 군예대의 존재 자체는 전쟁 이전에도 확인이 되나, 그것이 무대 공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때는 아무래도 전쟁 발발 이후가 된다. 육군본부 소속의 정식 군예대 외에도 각급 부대에서 경쟁적으로 군예대


육군 제1훈련소 군예대
(앞줄 왼쪽부터 가수 남인수와 금사향
뒷줄 왼쪽부터 배우 아수동과 구봉서)

를 설치했고, 이들 가운데에는 사실 소속 관계나 조직의 성격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비상한 전시 상황에서 그런 점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수많은 대중가요인들, 특히 신인급 가수나 연주자들이 군예대 활동으로 이 시기를 보냈다. 군예대는 기본적으로 군인 위문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기는 했으나, 그 공연 범위는 전선과 후방을 굳이 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던 상황에서 전개된 전시 대중가요였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새로 발표되어 나온 대중가요 작품이 적지는 않은 편이었다.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보면, 편곡이나 연주, 녹음 등이 실로 사상 최악을 면치 못할 정도로 매우 조악한 수준이기는 하나, 대중과 호흡을 맞추는 면에서는 이 시기에 절창으로 꼽힐 만한 작품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래가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특이하게도 노래책의 역할이 또 컸다. 경제적으로 거의 공황 상태였던 당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이 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손바닥 크기보다도 작은 싸구려 노래책이었다.

전시 3년 동안의 대중가요는 주로 1951년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개전 이후 약 반년 남짓한 동안은 남북의 내전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직접 개입으로 전세가 몇 번씩 뒤바뀌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렇다하게 언급할 만한 작품이 거의 없는 편이다. 대중가요인 동시에 군가이기도 한 <전우야 잘 자라> 같은 노래가 1950년 후반에 발표되어 히트한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전우야 잘 자라>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1950년)

1951년 후반에 발표된 전시 대중가요로 가장 대표적인 곡은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는 후방 여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님 계신 전선>이다. 1 · 4후퇴 때 제주도로 가서 한동안 머물렀던 작곡가 박시춘이 다시 뭍으로 나와 대구 오리엔트레코드에 참여하게 되면서 발표한 이 노래는, 가족을 전선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당위와 그러면서도 가족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갈등을 묘하게 얽어 표현한 작품이다.



〈님 계신 전선〉을 부르는 금사향의 모습.
지휘자는 작곡자 박시춘이다.

태극기 흔들며
님을 보낼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었소
만세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건강하소서
<님 계신 전선> 1절 (손로현 작사, 박시춘 작곡, 금사향 노래, 1951년)

<님 계신 전선>과 쌍을 이루는 후방의 노래로 더 많이 알려진 곡이 바로 <아내의 노래>이다. 원래 월북 작사가 조명암이 북으로 가기 전에 가사를 쓴 이 노래는, 전쟁 발발 이후 유호의 새로운 가사로 재탄생해 기록적인 히트작이 되었다. 비상한 전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진충보국'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 오늘날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곡이다. 작곡가 손목인은 이 노래 발표 직후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가신 뒤에 님의 뜻은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엔 즐거움이 넘칩니다

철순씨
글월을 받자와 얼굴을 얼굴을 대하듯
기쁜 마음에 거듭 읽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나이다
모든 것 참고 견디어 나가라는 당신의 말씀
이 ○○이 꿈속에서도 잊지 않았나이다
내 나라 내 가족 내 겨레 평화롭게 하리라고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신 당신
이 몸 아내 된 절개를 다 하지 못하고 어찌 하오리까
행여 연약한 마음이 외로울 때면은
저는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르지요
그러면은 멀리 멀리 계시는 당신의 마음
저를 어루만져 주시나이다 나의 나의 그대여
<아내의 노래> 1~2절 (유호 작사, 손목인 작곡, 심연옥 노래, 1952년)

역시 오리엔트레코드에서 발매된 <아내의 노래>와 같은 음반 뒷면에는 전시 대중가요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전선 야곡>이 수록되어 있다. 후방의 노래인 <아내의 노래>에 짝을 맞춰 전선의 노래인 <전선 야곡>을 뒷면 곡으로 선정했을 것이다. 1951년 늦가을 무렵 전선의 정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전선 야곡>은 비단 6 · 25전쟁 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시대를 초월해 불린 한국 대중가요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어머님의 흰 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대목은 <전우야 잘 자라>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구절과 함께 전시 대중가요의 절구로 꼽힌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 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들려오는 총 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안수 떠 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 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아 쓸어안고 싶었소
<전선 야곡>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신세영 노래, 1952년)

전쟁과 직접 관련된 소재, 즉 치열한 전투에 직접 임하고 있는 군인이 작중 화자가 되는 곡이나 후방의 여성을 겨냥한 노래들도 있지만, 전시에는 그와 다른 경향의 대중가요도 적지 않게 만들어졌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부터 의도적인 일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국 취향의 곡들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을 고향에 대한 전통적인 향수로 풀어낸 곡들이 있었고, 난리 중에도 어쨌든 삶을 꾸려 갈 수밖에 없었던 대중의 소소한 일상을 코믹하게 묘사한 노래도 있었다. 경쾌한 스윙 재즈 느낌으로 전시의 피로를 달래 주었던 <슈샨보이>가 바로 그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작곡가 손목인(본명 손득렬, 1913~1999)
〈목포의 눈물〉, 〈슈샨보이〉, 〈아빠의 청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슈샨 슈샨보이 슈샨 슈샨보이
슈슈슈슈 슈샨보이 슈슈슈슈 슈샨보이
헬로 슈샤인 헬로 슈샤인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구두를 닦으세요
아무리 피난터에 허둥거려도
구두 하나 깨끗하게 못 닦으시는
주변 없고 배짱 없는 고림보 샌님은
요 사이 아가씨는 노 노 노 노굿이래요
<슈샨보이> 1절 (이서구 작사, 손목인 작곡, 박단마 노래, 1952년)

3. 대중가요계의 전후 재편

1953년 7월 휴전으로 전쟁이 끝난 뒤 수도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전후 복구가 시작되었다. 대중가요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1954년부터는 특히 음반을 중심으로 조금씩 재건이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전투가 소모적인 국지전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휴전 이후 대중가요의 재건 속도는 생각보다 빠른 편이었다.

1954년에는 새로운 음반회사가 여러 군데 잇달아 설립되어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7월 스타레코드를 필두로 유니버살레코드, 오아시스레코드, 신신(이후 신세기로 개칭)레코드가 뒤를 이

었고, 부산에서는 전시에 두드러졌던 지역 음반회사의 끝자락으로 미도파(빅토리 상표도 함께 사용)레코드가 설립되었다. 이어 1955년 초 무렵에는 서울에서 킹스타레코드도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유니버살레코드 이하 다섯 군데 음반회사에 이미 전쟁 중에 설립된 도미도레코드를 더한 6대 음반회사가 이후 1960년 무렵까지 한국 음반산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밖에도 1950년대 중반에는 수십 군데에 달하는 군소 음반회사가 있었으나, 대개 오랜 기간 존속하지 못했고 이렇다 할 히트곡을 많이 발매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6대 음반회사라고는 해도 당시 음반산업 자체가 워낙 영세한 규모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한 기업이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 말까지도 크게 히트한 곡의 음반 판매고가 5만 장을 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음반 시장의 규모가 일제시대보다 오히려 줄었던 것은 확실한 일이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이나 만주까지도 판매 범위 안에 들었던 일제시대에 비하면, 한반도 남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한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전후 복구가 조금씩 진행이 되었다고는 해도 1950년대 경제 상황이 절대적인 빈곤이 만연해 있는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음반 시장의 대폭적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쟁 이전에 악극단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무대 공연은, 전쟁을 거치면서 악극이 퇴조 기미를 보여 점차 버라이어티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대형 악극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출중한 가창력으로 공연은 물론 방송과 음반까지 섭렵하며 1940년대 후반에 최고의 가수로 꼽혔던 김백희가 1950년대 중반 이후 대중의 시야에 점차 사라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극단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국극, 영화, 라디오 드라마 등 악극의 경쟁 상대가 갈수록 대중의 관심을 흡수해 가는 상황에서 대중가요와 서사적 볼거리가 결합한 악극의 특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악극을 포기한 대중가요 공연은 일반 극장 무대에서 버라이어티쇼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댄스홀 등에서 이른바 '경음악'형태로도 연주되었다. 1955년 무렵 전 세계적인 맘보 열풍으로 본격화된 춤바람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대중가요인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었다. 유명 악단장들(대부분 악단장인 동시에 연주가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했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악단을 이끌고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한편, 방송국 경음악단을 지휘하거나 대중가요 음반의 반주를 맡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1940년대 후반의 악극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가요 공연 무대가 활기를 띠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무대의 공연 또한 음반과 마찬가지로 전후 피폐한 경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호황을 누린 공연 무대는 따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955년 미8군 사령부가 용산에 설치된 이후 본격화된 미8군쇼 무대이다. 미8군쇼는 기본적으로 한국 대중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공연에 비해 대중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인적 구성 측면에서 일반 무대와 또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았으므로, 대중가요 공연



미8군쇼에서 공연중인 김시스터즈

분야에서 나름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 연예인들을 미8군쇼 무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7년에 설립된 화양흥업이라는 용역회사의 대표를 맡은 사람이 베니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유명 악단장 김영순이었는데, 김영순의 부인으로 그가 이끈 쇼 무대에 자주 서서 당대의 팝송 가수로 활약했던 이해연은 또한 전후 대중가요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부른 가수이기도 했다. 초창기 미8군쇼 무대에서 각광을 받은 김시스터즈 역시 일반 무대나 방송 등에서도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전후 대중가요의 재건 양상은 전에 없던 단체 결성에서도 확인된다. 이른바 악단의 유명 인사들이 주도한 대중가요 왜색 시비에 촉발되어 1956년에는 그에 대항하는 성격을 띤 대한레코드작가협회가 결성되었다. 이어 같은 해 연말에는 음반산업 분야의 조직체로서 대한레코드축음기제작가협회가 등장했고, 이듬해 1957년에는 대한레코드가수협회가 발족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명칭에서도 바로 드러나듯이 주로 음반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중가요계를 대변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분단과 전쟁 이후 대폭적인 재편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대중가요의 새로운 역사적 위상 설정을 염두에 둔 단체이기도 했다. 미8군쇼를 주 무대로 삼는 용역업체 중심의 업계와 그들 음반업계의 양립은 이후 1960년대 중반 무렵까지 한국 대중가요계의 구조적 특징으로 지속되었다.

4. 노래에 남은 상흔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작게는 재산에서부터 크게는 목숨까지, 사회 구성원 거의 모두가 전쟁으로 인해 무언가를 잃고 말았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 있었고, 남편이나 부모를 잃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있었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상이군인들도 있었고, 이념 다툼의 낙인이 찍혀 명예를 잃은 이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폭 넓은 상처는 역시 이산과 실향의 아픔이었다.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담은 〈굳세어라 금순아〉는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사진은 1962년 제작된 영화 〈굳세어라 금순아〉(감독 최학곤, 주연 최무룡, 구봉서, 이방진)의 포스터.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봄도 그리워진데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승달만 외로이 떴다

철의 장막 모진 설움 받고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순아 굳세어 다오 북진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울어 보자 얼싸안고 춤도 추어 보자
<굳세어라 금순아>
(강해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1953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대중가요가 이보다 더 큰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사적인 성격이 강한 <굳세어라 금순아>는 한 해 먼저 발표된 <전선 야곡>과 함께 대구 오리엔트레코드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절창이다. 흥남 부두에서 부산 영도다리로 이어지는 공간의 전개 속에 담아 낸 노래의 이야기에 전쟁으로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사가 강해인은 고향 여수에서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다가 이 작품으로 겨우 재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그런 점에서 3절에 등장하는 '북진통일'은 시대의 구호이기도 했지만 작사가 개인의 안위를 담보한 일종의 보험이기도 했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그 대목이 '남북통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뜬구름아 물어 보자 어머님의 문안을
달님아 비춰 다오 인성이와 정숙이의 얼굴을
생시에 가지 못할 한 많은 운명이라면
꿈에라도 보내 다오 어머님의 무릎 앞에
아 어느 때 바치려나 어머님께 효성을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꿈에 본 내 고향> 1~2절 (박두환 작사, 김기태 작곡, 한정무 노래, 1954년)

금순이와 헤어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어느 함경도 청년의 노래가 <굳세어라 금순아>라면, 고향에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온 평안도 청년의 노래가 <꿈에 본 내 고향>이다. 2014년에 한국 대중가요 고전 33선에 선정되기도 한 이 노래는, 실제 평안도 출신으로 전쟁 중에 월남한 가수 한정무가 불러 현실감을 더욱 더했다. 지금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온 모든 이들의 애창곡이 되었지만, 1954년 발표 당시 상황에서는 이른바 '삼팔따라지'들의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는 작품이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 많은 미아리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섣달 기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십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단장의 미아리고개> 1~2절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이해연 노래, 1957년)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는 아픔은 당시 대중가요인들이라 해서 비껴가지 않았다. 가수로 데뷔해 작사가 활동도 겸하고 있었던 반야월은 전쟁 발발 직후 홀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뒤 어린 딸



가족을 잃은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빗대어 표현한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애가 끊어지는 고통을 덜어 보려 가사뿐만 아니라 곡까지 직접 써 보았지만, 아무래도 당사자의 격한 심정이 매끄럽게 작품으로 승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때문에 결국 다른 작곡가의 곡을 받아 최종적으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단장'이라는 말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딸을 잃은 아비의 심정에서 발상이 나온 것은 분명하나, 작품에 깃든 비애의 수위 조절과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딸을 잃은 아버지 대신 남편을 잃은 아내를 작중 화자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수 겸 작곡가 한복남 (본명 한영순, 1919~1991) 〈빈대떡 신사〉를 불러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도미도레코드를 설립해 현인, 금사향, 손인호 등의 쟁쟁한 가수들을 배출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대야 네 모양이 그립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 소식을 물어 본다 한 많은 대동강아
<한 많은 대동강> 1절
(야인초 작사, 한복남 작곡, 손인호 노래, 1958년)

전쟁이 끝나고도 5년이 지난 1950년대 말.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많은 노래에 남아 있었다. 전쟁과 관련된 테마는 1950년대 내내 거의 하나의 장르로 꼽아도 좋을 만큼 한국 대중가요사에 큰 흔적을 남겼다. 작품에 참여한 작가나 가수의 직접 경험이 반영되어 더 감동적인 가사와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음을 앞에서도 보았지만, <한 많은 대동강>의 작곡가 한복남과 가수 손인호도 평안도 고향을 떠나 월남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월남이 전쟁의 직접 결과는 아니었으나, 서울로 가서 성공하기 위해 떠난 고향을 정작 성공한 뒤에는 갈 수 없었던 심정은 여타 실향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평안도 안주에서 양복 기술자로 일하다가 해방 뒤 서울로 와서 가수로 데뷔한 한복남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음반회사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음반회사가 바로 앞서 보았던 도미도레코드이다.

※ 이 글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성북문화원에서 주최한 학술회의 '6.25전쟁과 미아리고개'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참석하신 청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므로 여러 독자분들에게도 소개하고자 본지에 재수록하였습니다. 게재를 허락하신 이준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 종암8경을 찾아서

글 |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1 종암로

종암동에서 산 지 10년이다.

1950년대부터 대도심의 배후 주택지로 발달한 종암동은 변변한 볼거리라고는 없는 평범한 동네이다. 자동차들이 씽씽 달리는 왕복 8차선 도로, 높다란 성채 같은 아파트 단지, 붉은 벽돌조의 다세대 주택, 그 벽 틈에서 고양이들이 겨울을 나는 인구 4만 3천의 거대한 동네.

그러나 알고 보면 유서 깊은 곳도 많아 그런 곳에서는 가끔 발길을 멈추고는 했다. 여기에 살며 이 거리 저 골목을 걷다가 틈나는 대로 기억의 창고에 저장해둔 나만의 장소 몇 군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른바 내가 뽑은 종암8경.

#1. 종암로

왕복 8차선 너비의 이 간선도로는 종암동 한복판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서울 도심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야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도로를 걸으면 늘 자동차의 엔진소리, 경적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서울 시내 어디서나 접하는 삭막한 경관이지만 사실 이 길의 역사는 600년이 넘는다. 고려시대 개경과 남경(서울의 옛이름)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다. 고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고려대-대광고-신설동을 잇는 경로를 따라 남경의 동쪽 옆구리로 진입했다. 조선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암로, 이 묵은 길을 가지 삼아 그 양옆으로 나뭇잎 같은 종암동 주민들의 삶이 매달려 있다.

#2. 북바위 전답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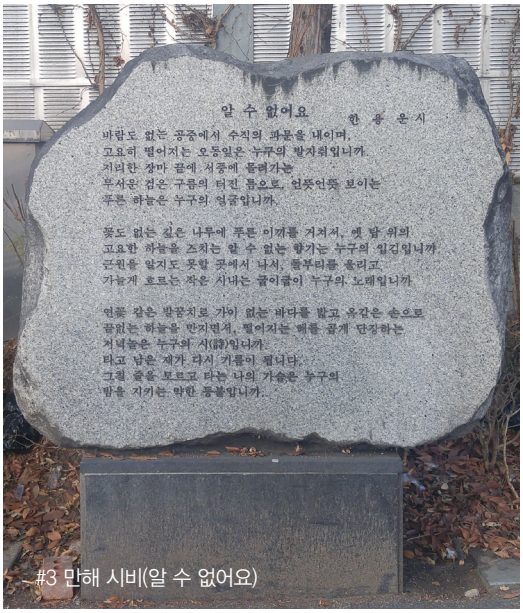

#2 북바위 전답터 표석

종암동 남쪽 초입의 인도 한 켠에는 자그마한 화강암제 표석 하나가 서있다. 1945년 무렵만 해도 주민들은 이곳 북바위 전답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주·부식을 해결하였고, 그 옛날 북바위 전답을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농부의 자격을 결정하였다는 이야기가 자세하다. 북바위는 종암(鐘巖)-고암(鼓巖)이라고도 한다-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북 모양의 바위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북바위가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분이 안계시다. 저 멀리 개운산 중턱 부근을 미간을 좁히며 보아도 그런 바위는 눈에 뜨이지 않는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도서관에 들러『서울의 옛 지도』라는 책을 펼쳐본다. 어느 지도 위에 고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 둥그런 바위 하나가 그려져 있다. 북바위다. 산속의 바위가 지도 안으로 숨어들었음을 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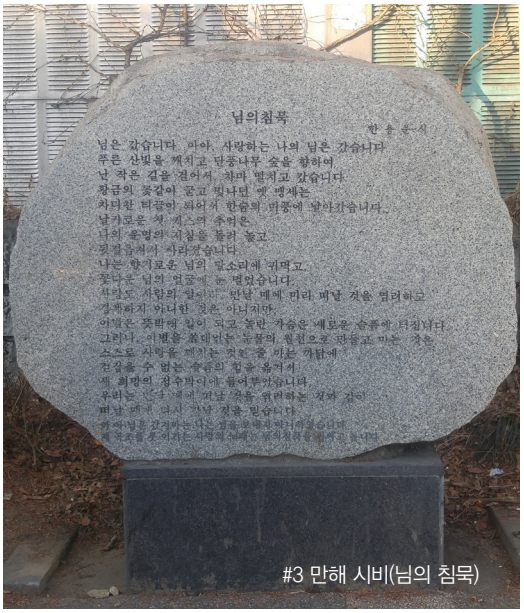


#2 옛 지도 속 북바위(〈동국여도〉 중 도성도, 19세기 전반)

#3. 만해 한용운 시비



#3 만해 시비(알 수 없어요)



#3 만해 시비(님의 침묵)

북바위 전답터 표석을 일별하고 북쪽으로 걷다보면 왼편으로 '물의 거리'라는 분수조형물이 보이고 조금 더 가면 버스정류장 뒤로 두 개의 시비가 종암로를 바라보며 서 있다. 1999년 물의 거리가 만들어질 때 함께 들어선 만해 한용운의 시비이다. 왼쪽에는 「알 수 없어요」가 오른쪽에는 「님의 침묵」이 명조체로 새겨져 있다. 만해는 성북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선생이 만년을 보낸 심우장이 지금도 성북동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종암동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훌륭한 시가 자주 읽히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다. 아침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만해는 묻는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시인의 물음이 매일 화단의 물처럼 뿌려지는 종암동은 복되다.

#4. 숭례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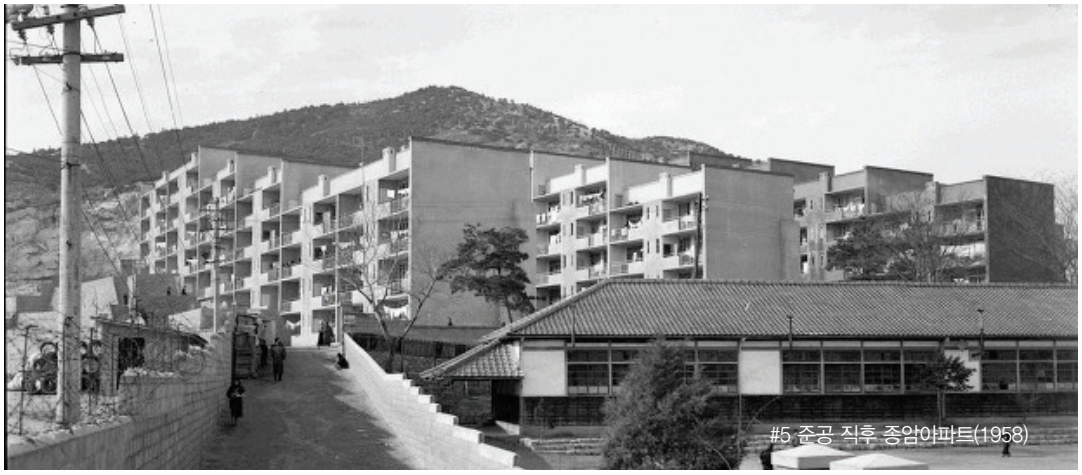


#4 서울숭례초등학교

한용운 시비 뒤로 초등학교 하나가 보인다. 1945년에 개교한 종암동의 터줏대감 숭례초등학교이다. 2002년 개운초등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거의가 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요란한 유명세를 탈 것도 없이 지난 70년 동안 묵묵히 4만 명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개그맨 강석을 비롯해 탤런트 전광렬, 한석규와 같은 연예인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정도? 이중 한석규의 종암동 사랑은 각별하다고 들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초원사진관이란 이름은 한석규가 어릴 적 종암동에서 봤던 사진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혹시 지금도 그 사진관이 있나 해서 몇 번 찾아봤지만 아쉽게도 그런 상호는 없었다.

#5. 종암선경아파트

숭례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면 아파트가 나타난다. 종암선경아파트다. 2개동에 230여 세대가 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1995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 이 자리엔 1958년에 완공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효시 종암아파트가 있었다. 중앙산업(주)이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지은 것으로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했다. 방 2칸에 거실, 주방, 창고, 발코니까지 딸린 당시로선 고급 주택이었다. 집안에 수세식 변기를 들여놓은 혁신적인 실내구조로 유명했다. 그러나 막상 분양에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높은 곳에서 자면 고공병에 걸린다'며 기피했던 탓이다. 1992년 아파트는 34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엔 지금의 선경아파트가 들어섰다.


#5 준공 직후 종암아파트(1958)


#5 종암아파트 철거 후(1992)


#5 종암선경아파트(2015)

#6. 이육사 집터



선경아파트와 래미안 종암2차 단지를 잇는 한적한 이차선 도로를 따라가면 종암동 62번지, 이육사 시인의 옛 집터가 나온다. 이 번지를 알게 된 것은 새문사에서 발간한『이육사전집』을 읽다가였다. 작가연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39년(36세) : 가을 서울 종암동 62번지로 이사.' 작품연보에는 1939년『문장』지에「청포도」를 발표하고 이듬해「절정」을 발표했다고 나와 있었다. 뭔가 신비롭고 반가운 느낌이었다. 용맹한 지사요, 순결한 시인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이육사의 자취가 이리도 가까이 있었다니. 이육사의 외동따님 옥비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안동 원촌리의 본가와 큰집, 작은집이 상경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평범한 골목과 빌라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대로인 것이 있다면 서편으로 언뜻 보이는 개운산과 따뜻한 햇빛일 것이다. 이 산과 햇빛을 보던 육사의 모습을 허공에나 그려본다.

#7. 서울사대부고


#7 서울사대부고 안 송림


#7 서울사대부고 안 송림

종암동의 남동단 정릉천을 끼고 자리한 서울사대부고는 이 동네의 유일한 고등학교이다. 청량리에 있던 이 학교가 여기로 옮겨온 것은 1971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서울대 상과대학이 이곳에 있었다. 대학건물을 그대로 고등학교 교사로 썼던 것. 옛 대학본관 건물, 강당, 경비실이 지금도 남아 있다. 10월에 열리는 종암동 북바위 축제가 이곳 강당에서 열린다. 학교라 낮에는 주말에만 드나들 수 있지만 옛 본관 앞 울창한 송림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일제강점기 상과대학의 전신이었던 경성고등상업전문학교 시절에 조성한 숲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내뿜는 향기가 매혹적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도 춥지 않다.

#8. 개운산

종암동의 서쪽에 버티고 서서 겨울날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근린체육공원의 역할까지 도맡는 개운산의 존재에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표고 134미터에 불과한 야산이라고는 하나 인간에게 내어준 품은 어느 큰 산 못지않게 넓다. 성북구의회, 체육센터, 구민운동장, 군부대 등이 정상에 들어서 있고 대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3개와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 14개가 산에 기대고 있다. 성북구의 동서를 양분하는 위치에 있어서 해마다 1월 1일이면 해맞이 행사가 산 정상 운동장에서 열린다. 씻은 듯이 맑은 날 정상에 서면 동서남북으로 벌려 있는 서울의 명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

개운산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벚꽃 필 때라고 말해주고 싶다. 진해나 여의도 같은 벚나무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다. 여기는 산벚꽃이 핀다. 4월 아침 올려다보는 연무에 싸인 산은 햇빛을 빨아들이며 초록과 분홍으로 영롱하게 빛난다. 곧이어 이 산은 동쪽으로 정릉천을 사



#8 하늘에서 본 종암동과 개운산(2007)

이에 두고 마주한 저 천장산과도 분홍빛 신호를 주고받으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종암동 주민들에게 또 한 번 좋은 시절이 왔음을 알린다. 아쉬운 점은 그런 장관을 산 이곳저곳을 막고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 가려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옛날 농사짓는 틈틈이 산을 볼 수 있었던 북바위 전답의 농군들만 좋았겠다. 모르긴 몰라도 「사철가」 한 대목 뽑지 않았을까?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이제는 역사가 되어

미아리 공동묘지 이야기

글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1. 미아리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겐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하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갖지 않은 사람이건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쉽게 보내지 않는다. 죽은 날짜를 기억하고, 죽은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가 추억한다. 따라서 죽은 자의 안식처인 묘지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이며 기억의 장소이다.

하지만 나의 가족, 나의 지인이 아닐 경우, 묘지는 더 이상 추억과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알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공포가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묘지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그렇게 가장 두려움의 장소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공동묘지'이다.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었던 오늘날 길음동 일대의 모습.
보는 바와 같이 공동묘지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동묘지는 조선의 전통적 장례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조선시대 묘지의 위치는 풍수에 의해 결정됐다. 왕릉의 위치는 조선 최고의 풍수가들이 고른 곳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되었고, 양반들 역시 풍수가 좋은 곳에 선산을 꾸미고 그곳에 조상의 묘를 썼다. 백성들도 가능하다면 풍수가 좋은 곳에 조상의 묘를 쓰려고 했고,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가 정해준 장소가 장지(葬地)가 되었다. 이런 장지는 '공동묘지'의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그 장소는 풍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전면적인 제동을 건 것일 일제가 1912년 6월 20일 총독부 부령 제123호 「묘지화장매장급화장취체규칙(墓地火葬埋葬及火葬取締規則)」(이하 「묘지규칙」)이었다. 「묘지규칙」은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묘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경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묘지는 부(府)·리(里)·동(洞) 기타 지방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아니면 신설하지 못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단독, 혹은 일족(一族) 또는 합족(合族)의 묘지를 허가할 수 있다.
3. (전항 묘지의 제한)
   1) 도로, 철도 및 하천에서 10칸 이상, 인가에서 60칸 이상 떨어진 곳.
   2) 수원, 수류 및 마시는 우물 혹은 샘물과 관계없는 토지일 것.

일단 1, 2번 조항을 보면 묘지를 신설할 수 있는 기관은 부·리·동과 같은 공권력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3번 조항을 보면 묘지를 민가와 사람과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물과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 「묘지규칙」은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왔다. 특히 1,2번의 조항이 많은 반감을 샀다.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묘지를 썼는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었던 것이다. 이런 반감은 1940년대까지도 계속되지만 일제의 「묘지규칙」 또한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점차 '공동묘지'를 하나의 제도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위생상의 이유를 든 3번 조항도 주목된다. 이 조항은 시체 썩은 물이 식수로 유입되거나, 죽은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병균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이 조항은 묘지에

관한 인식을 '존경'과 '두려움'의 공간에서 '혐오시설'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1925년에 이르면 공동묘지는 오물처리장, 도축장들과 함께, 도시가 확장되면서 가장 먼저 밖으로 옮겨가야 할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다. 1920년대 후반의 신문기사에는 공동묘지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공동묘지 이전 면장에게 진정
> …화산리에 있는 공동묘지는 매년 많은 매장이 일어난 결과 현재에는 더는 매장할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공동묘지와 인가가 멀지 않은 관계로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묘지의 오물을 물고 집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위생상에도 관계가 있다 하여 전주 면장에게 공동묘지를 이전하고자 진정하였다. (「동아일보」 1928년 2월 17일_밑줄은 필자)

> 대동군 용산면 당상리에 있는 밭 11,664평과 임야 54,530평의 민간 소유지를 평양부에서는 이를 공동묘지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여, 이를 매수할 의향으로 전(田) 매평(每坪)에 최하 29전, 최고 37전으로 매수를 실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상당리 주민대표 김연벽(金連璧) 이외 6인이 부(府) 당국을 방문하여 동리(同里) 60여 호의 생활에 유일한 방편이 되는 임야와 밭을 매수시키면 한 마을의(一洞里) 주민은 생활 불안 뿐 아니라 촌락 바로 뒤에 공동묘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반대를 하나 부(府) 예정(豫定)이라 하여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동아일보」 1929년 5월 12일_밑줄은 필자)



共同墓地移轉
面長에게陳情

全州郡伊東面華山里民二十八名의連署로지난十三日에全州面當局에陳情書를提出하얏다는데그內容을보면全州面共同墓地는一個所인데伊東面華山里에잇는共同墓地는年年이多數埋葬의結果現在에는더埋葬할餘地도업슬뿐아니라同墓地와人家가不遠한關係上家犬이墓地의汚物을물고집안에侵入할뿐아니라衛生上에도關係가잇다하야全州面長에게共同墓地를移轉코저陳情하얏다는데全州面에서는實地를調査하야適當한候補地를選擇코저한다더라(全州)

靈臺夜學開講 城津郡鶴南面龍臺洞에잇는靈臺奨學會

192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共同墓地反對
陳情書提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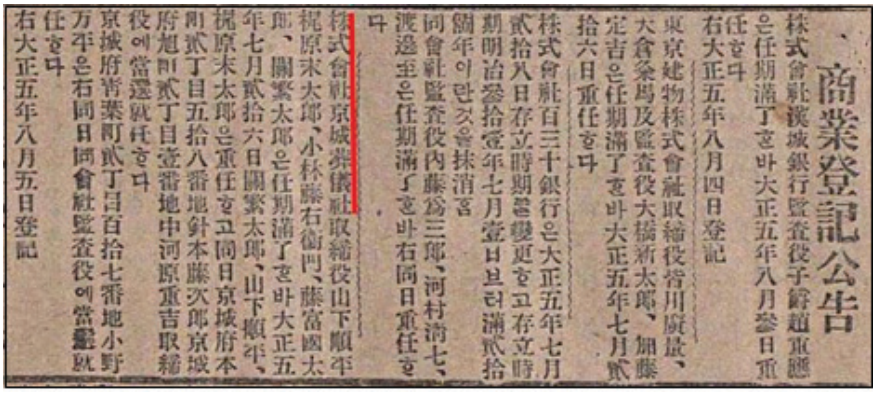
지난一日午前十一時에全北全州郡雨林面民代表로面長金永珍面協議李鍾錄、金京澤、二木悟諸氏와區長金德助、柳史璣、金濟民諸氏가全州郡守川崎一郎氏를訪問하고陳情書를提出하얏다는데既報한바와가티全州面에서從來의使用하든伊東面華山里共同墓地가狹窄하야新設共同墓地를雨林面松亭里林野를買受하야指定하고道當局에認可願外지提出한故로그것을反對하기爲함이라더라【全州】

1929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위의 기록은 모두 1920년대 후반 신문기사이다. 먼저 첫 번째 기록을 보면 공동묘지가 민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위생상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공동묘지를 불가하다는 이유가 따로 없다. 1912년 「묘지규칙」이 시작된 이후 15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공동묘지는 지금과 같이 '기피시설'혹은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묘지의 탄생으로 장례가 마을 공동체와 무관한 것이 되어가자, 장례식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다. 예전 같으면 마을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장의사가 등장한 것이다. 신문에서 장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6년 8월 8일이다.

> 주식회사 경성장의사(京城葬儀社) 취체역(取締役) 山下順平, 梶原末太郎, 小林藤右衛門, 藤富國太郎, 關繫太郎은 임기만료 한 바, 대정(大正) 5년 7월 26일 關繫太郎, 山下順平, 梶原末太郎은 중임하고…(「매일신보」 1916년 8월 8일)



商業登記公告

株式會社濱城銀行監査役子爵趙重應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八月參日重任ᄒᆞᆫ다
右大正五年八月四日登記

東京建物株式會社取締役岩川廣最、大倉粂馬及監査役大橋新太郎、加藤定吉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七月貳拾六日重任ᄒᆞᆫ다

株式會社百三十銀行은大正五年七月貳拾八日存立時期를變更ᄒᆞᆫ고存立時期明治參拾壹年七月壹日브터滿貳拾個年이란것을抹消ᄒᆞᆷ

同會社監査役內藤爲三郎、河村淸七、渡邊玉은任期滿了ᄒᆞᆫ바右同日重任ᄒᆞᆫ다

株式會社京城葬儀社取締役山下順平梶原末太郎、小林藤右衛門、藤富國太郎、關繫太郎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七月貳拾六日關繫太郎、山下順平、梶原末太郎은重任ᄒᆞᆫ고同日京城府本町貳丁目五拾八番地針本藤次郎京城府旭町貳丁目壹番地中河原重吉取締役에當選就任ᄒᆞᆫ다

京城府靑葉町貳丁目百拾七番地小野万平은右同日同會社監査役에當選就任ᄒᆞᆫ다
右大正五年八月五日登記

1916년 8월 8일자 매일신보. 주식회사 경성장의사라는 문구가 명확히 보인다.



滿員된 共同墓地

부령에서는새로히설뎡ᄒᆞᆫ바

경성부의 공동묘디는 ᄎᆞᆫ부오십 년만일ᄎᆞᆫ월백 삼십삼평인ᄃᆡ 그 중에 가장널분곳은리태원(李泰元)의 십일만구ᄎᆞᆫ 삼백이십삼평인ᄃᆡ 경성부ᄂᆡ에 잇는것은 큰ᄆᆡ에가죽 공동묘ᄃᆡ(家族共同墓地)에 대한 새규측이나 서해개는 선산에다가 장사를 ᄒᆞ는것이 일반의 풍속이라 공동묘ᄃᆡ에 매장하는 사람은 오ᄎᆞᆫ명ᄇᆡ지 ᄒᆞᆫ명 이라 유골을 원본으로 가지가는것이 ᄆᆡ우 편리ᄒᆞ며 리태원씨 신당리등의 공동묘ᄃᆡ는 임의 ᄇᆡ러가 업시 되얏슴으로 부령 당국자는 새로히 공동묘ᄃᆡ를 설뎡ᄒᆞ기 위ᄒᆞ야 방ᄀᆞᆫ ᄒᆡ 조사중이라더라

年別	死亡	埋葬
七年	六,六七九	五,四四二
八年	九,四四七	七,九〇四

1922년 7월 5일자 동아일보 "만원된 공동묘지"

위의 기사를 보면 1916년 당시 이미 장의사는 하나의 직업으로 성립하여 있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공동묘지 제도의 도입은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례가 공동체와 무관해짐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장례가 가진 공적 영역도 해체되었다. 일제는 장례를 개인과 가족의 일로 만듦으로 해서 사회장을 저지하였다. 이후의 일이지만 고종과 순종의 장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례는 공동체 결집과 사회질서의 회복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지된 것이다.

이제 죽음과 죽은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어갔다. 또한 공동묘지의 탄생은 국가권력(일제)의 통제가 개인의 일이었던 장례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위생과 경제

관념, 삶과 죽음의 공간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묘지의 탄생은 근대국가 공통의 모습이었지만, 일제는 전통의 파괴, 공동체의 해체 등을 목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공동묘지를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한국의 공동묘지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렇다면 미아리 공동묘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1912년「묘지규칙」이 발표되면서 묘지로 설정된 지역은 19곳이었다. 그중 1번은 미아리 오패산 일대, 2번 묘지는 숭인면 미아리(길음동) 일대였다. 특히 2번 길음동 일대는 교통이 용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었다. 1922년 당시 경성부에서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사람은 매년 5,000명~6,000명에 이르러 이미 '만원이 된 공동묘지'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2번 미아리 묘지로 불리게 되는 길음동 일대는 조선인 전용 공동묘지로, 1929년부터 2년 동안 공사를 하여 시설이 정비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에는 16,000기의 무덤이 있는 대형 공동묘지로 '성장'하였다.

> 미아리 공동묘지는 경성부민의 死의 안식처의 하나로 금빛으로 단장한 영구차가 하나의 인생의 최종열차로써 몇 번이고 와 닫는 '사의 都'이다.
> 벌써 돈암리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만도 이 인생의 최종열차는 늦가을 햇볕에 금빛을 번뜩이면서 되네미 고개를 구비 돌아 도보로 가는 기자에게 한바탕 먼지를 끼얹고 달아나고 있었다.

위의 기사는 1937년『조광(朝光)』에 실린「세색(歲色)도 장춘(將暮)!」라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기자는 미아리 공동묘지를 '죽은 자의 수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미아리 공동묘지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경성부에서 미아리 공동묘지를 가려면 '되네미 고개', 즉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했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먼지가 많이 날렸다는 것이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 미아리 공동묘지는 다시 경성부 부근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니었다. 1922년 당시 경성부 공동묘지의 총 면적은 511,830평이었는데 가장 넓은 공동묘지는 이태원 공동묘지로 119,328평이었고, 다음은 신당리에 118,023평이었다. 길음동에 위치한 2번 미아리 묘지는 약 69,000평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아리 묘지는 미아리 묘지는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였으며, 1940년을 거치며 이태원 · 신당리 묘지가 망우리 · 신시리 묘지로 통폐합되면서 미아리 묘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묘지 터가 부족해졌고, '공동묘지'에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 "여기도 등수가 있습니까?" 죽어 묻히면서도 빈부차가 있는가하고 물으니
> "네, 2등지는 제일 좋은 땅이고요, 3등지는 자연 그보다 떨어집니다."

"그럼 2등지는 한 평 얼마나 합니까?"
"7전 50전입니다. 그리고 3등지는 4원, 4등은 2원, 5등은 1원이고 6등은 50전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가 있는데 이건 한 평에 2등지는 4원, 3등지는 2원, 4등지는 1원인데 가족만 따로 모시게 되죠…"(1937년『조광(朝光)』「歲色도 將暮!」)

위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의 수도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했다. 이것도 공동묘지 전에는 없던 현상이었다. 미아리 공동묘지는 이렇게 '죽은 자의 수도'로써, '경성부민 죽음의 안식처'로 기능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공동묘지의 기피 시설화'는 더욱 심화 되었다. 1941년부터 미아리 공동묘지 주변 사람들은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제 강점기에는 실현되지 않았다.

미아리 공동묘지의 이전이 실현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서울 각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미아리로 모여들어 판자촌을 형성했다. 정부는 이들을 판자촌의 철거를 반복하였지만 실패하고 결국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택지로 결정된 것이 제2미아리 공동묘지였다. 당시 미아리 공동묘지에 있던 19,700기의 묘지는 1958년 후반에 이전이 완료되고, 1959년에는 그곳에 80,500평의 택지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1962년에는 공동묘지 위에 첫 번째 마을이 들어서기도 했다. 이후 택지 개발은 부침을 겪어가며 진행되지만, 미아리 공동묘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전시찰단이 촬영한
미아리 공동묘지의 모습 (1958년)



2. 미아리 공동묘지 야화

(1958년 11월 연재된 『동아일보』 '미아리 공동묘지 야화'를 재구성하였음)

1) 딸 묘지에서 의문의 모래 세례를 받은 남자

삼십대를 갓 넘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딸을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었다. 자신의 첫 딸이자, 외동딸이었다. 부모를 잃은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없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슬픔이 커서라고 한다. 서른 초반에 딸을 잃은 남자의 슬픔 역시 그러했다. 그는 틈만 나면 딸의 무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삼 개월이 흘렀다. 그는 딸이 그리워 미아리 공동묘지를 찾았을 뿐이지만, 어느새 공동묘지의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1958년 11월 18일 동아일보(묘지이전)

그런 그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설마 따라 죽지는 않았겠지?'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딸이 좋아하던 인형과 과자를 가득 안고 다시 묘지에 타나났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움을, 한편으로는 여전히 딸을 잊지 못하는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딸의 묘지에 가져온 선물을 내려놓고는 앉아서 중얼거렸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죽은 딸과 이야기하는 듯 싶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놀라 새파랗게 질려 살려달라고 외치며 관리 사무실로 달려왔다.

관리소 사람들은 그를 안심시켰다. 물도 한 잔 주고, 진정시키고 나니 그는 지난날을 이야기 했다. 그의 이름은 권표옥이었다. 청진동에 사는 그는 딸을 자주 보고 싶어 멀지 않은 이곳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고 매일 같이 찾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일이 바빴던 그는 저녁 무렵이 돼서야 딸의 무덤을 찾아 왔다. 그리고 평소처럼 둘러보며 말했다고 한다. "혼자 있으려니 쓸쓸하지?" "내가 왔으니 안심하고 놀렴", "어머니는 바빠서 못 오신단다." 자식 잃은 부모가 무덤에 찾아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귀가 잘못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버지" 분명히 살아 있을 때 자신에게 응석을 부리던 딸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바로 딸의 묘지에서 흘러나왔다. 저녁 무렵 공동묘지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반갑기 보다는 두려웠다. 그는

빠르게 묘지를 내려왔다. 그 다음날은 무서워 딸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간 딸의 무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다시 딸의 무덤을 매일같이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딸 무덤의 제초를 끝내고 쉬고 있었다.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멀리 일하는 인부의 모습이 간혹 보일 정도였다. 이때 그의 귀에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 딸의 울음소리였다. 무서웠지만 그는 그 울음소리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는 분명히 묘 뒤에서 분명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울음소리도 그쳤다. 한참 그곳을 지키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묘 앞 쪽에서 모기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났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봤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든 그는 지난 날 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이 급히 묘지를 내려왔다. 그가 한동안 딸의 묘지를 찾지 않은 것은 그 날 이후였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못 찾아온 것이 미안했던 그는 딸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잔뜩 갖고 묘지를 찾았다. 딸의 무덤 앞에 가져온 물건들을 놓고 명복을 빌던 참이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모래가 쏟아졌다. 머리에 모래를 뒤집어쓴 그는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는데 다시 한 번 모래가 날라 와서 양복에 뿌려졌다. 갑자기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새파랗게 질려 뛰어 내려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일 년 넘게 딸의 무덤을 찾지 않았다.

그가 정말 '아빠, 아빠'하는 딸의 목소리와, 흐느끼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 또 모래 세례를 맞았을까? 지금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것이 정말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첫 번째는 아빠를 그리워했던 딸의 목소리였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온 아빠를 보고 반가워 울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아빠를 약올리기 위한 장난은 아니었을까?

2) 못 이룬 사랑

해방직후의 일이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누구인가 공동묘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사무실에서 숙직하는 사람들은 잠에 취해 듣지 못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묘지 바로 아랫동네에 사는 부락민들이었다. 이들의 표정을 보아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였다.

성급한 한 부락민이 말했다. '저기 시체가 나와있어요.' 그는 산 아래쪽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했다. 그들은 어젯밤, 삼 일 전에 쓴 어떤 처녀의 묘가 파헤쳐져 있으며 그 묘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관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무소 사람과 인부들은 한걸음에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과연 산소는 파헤쳐져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괭이와 부삽이 그리고 약 5m 떨어진 곳에는 달린 관이 놓여있었다. 누가 관을 파내서 메고 가려다가 내려놓은 것임이 분명했다. 사무소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둔 채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알렸다.

그 파헤쳐진 산소의 주인공은 서울시내 영등포에 살던 김모라는 21세 된 묘령의 처녀였다. 이



한 미군(美軍)이 촬영한 미아리의 민가와 공동묘지의 모습(1956년)

사건으로 미아리 공동묘지는 발칵 뒤집혔다. 경찰서 형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에서 검사가 나와 현장 검증을 하고, 또 신문기자들이 몰려나왔다.

다음날, 신문에는 그 산소를 파헤쳐서 시체를 훔쳐가려던 범인을 잡았다고 보도되었고 그 범인의 신원 그리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상세히 밝혀졌다.

오랜 신병으로 죽은 김모양과 한 동네에 살던 역시 김씨라는 남자가 진범이었다. 김씨는 김양과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김양을 자주 보았고 언젠가부터는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김양과 이야기를 건너는데 성공했고 그 후부터는 자주 만나기까지 했다. 사랑이 한참 무르익어갈 때 김양은 가슴(폐병)을 앓기 시작하여 병석에 눕게 되었다. 김씨는 더 늦기 전 김양과 결혼하려 했고, 가족을 통해 김양 부모에게 청혼을 하였다. 그러나 김양 부모는 한 마디로 거절하였다. 혼기도 차지 않았고, 병이 있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그날 이후 김씨는 김양을 볼 수 없었다. 애인을 만나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앞이 캄캄해지고 미칠 것 같았다. 그러나 김양의 집 근처를 매일같이 둘러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양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나왔다. 김양이 죽은 것이다. 김씨는 문상을 가서 시체가 놓인 방에 들어가 나오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는 치러야 했다. 김양은 미아리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조용히 묻혔다. 김씨는 남들이 보지 않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한없이 울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김양이 다시 살아날 리 없었고, 슬픔은 더해졌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산소에

가서 죽은 시체나마 파오는 것이었다.

김양이 묻히고 사흘째 되던 날 밤 김씨는 땅을 파는 연장을 가지고 애인 김양의 묘를 찾았다. 무턱대고 파기 시작하였지만 위의 흙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그렇게 쉽게 관을 팔 수는 없었다. 한 시간쯤 팠을까? 괭이가 나무 관에 닿는 소리가 났다. 관을 파낸 김씨는 관을 등에 매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이 생각보다 무거웠다. 멀리 가져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김씨는 관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애인을 메고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궁리를 해봤으나 해결의 방도가 나오지 않았다. 주위는 캄캄하고 먼 곳에는 무슨 짐승 울음 소리도 들리고 김씨는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 관 옆에 서있기가 싫어졌고 나중에는 관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3. 미아리 공동묘지 이야기를 마치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해도, 삶과 죽음의 헤어짐이 슬프지 않을 리 없다. 그 중에는 어린 자식을 묻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난 자식을 그리며 남긴 묘지명으로 미아리 공동묘지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이봉근은 1927년 5월 30일 창경원의 아침 꾀꼬리 소리에 나다.
> 밝고 착하고 재주 있어 사랑과 칭찬을 받다. 이화유치원 성탄 축하 연설로 갈채를 받다. 20분 동안에 한글을 깨쳐 신문에서 받침 없는 글자를 골라 읽다. 하나님, 부처님, 죽은 뒤, 전쟁, 만주사변 등 문제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창작하고 그림과 음악을 즐기다. 보통학교에 입학하려는 기쁨 속에 1934년 2월 22일 아빠하고 같이 올라갈 마지막 웃음으로 인왕산에 지는 해와 함께 영원히 잠들다. 6년 8개월 우리의 기쁨이오 큰 희망이던 너를 여기 묻노라.
>
> 아빠 이광수
> 엄마 허영숙



바라는 손님은 언제 오시나

독립운동가 및 시인 이육사李陸史

(1904년 5월 18일 - 1944년 1월 16일)

글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서대문 형무소 수감 당시(1934년 6월 20일) 신원카드

위의 글은 시인 이육사의 대표적인 시 「청포도」이다. 이육사는 '내 고장'을 조국으로, 청포도를 민족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청포도가 익어가듯, 우리 민족도 '익어가서' 독립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시를 썼다. 이육사는 본인 스스로 '청포도'를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다'고 표현한, 애타게 기다리던 손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이육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다. 1931년 1월 '대구격문사건'으로 복역된 것이 그의 본격적 독립운동 행적의 시작이었다(이후 그는 17번이나 옥살이를 한다). 1932년 4월에는 베이징에 가서 의열단 활동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군사간부로 성장하였다. 1933년 7월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


친지들과(왼쪽 끝 맏형 이원기, 오른쪽 앞 이육사)

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한글로 된 문학작품을 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한시(漢詩)를 발표하는 것으로 저항하다, 1943년 4월 끝내 독립운동을 위해 다시 베이징으로 떠난다. 하지만 같은 해, 어머니와 큰형의 소상(小祥 :고인이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에 참여하려 귀국하는데, 이때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1944년 1월 16일 결국 베이징 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한다. 그의 시신은 그의 아우 이원창에게 수습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된다. 아마도 서울 근교에 있고, 원창 자신의 집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60년 미아리 공동묘지가 사라지며, 고향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에 이장되었다.


왼쪽부터 이원창 이원일 이원조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李源祿)이다. 자(字)는 태경(台卿)이고, 어릴 적 이름은 원삼(源三)이다. 이육사가 처음 필명으로 사용한 이름은 1929년 후반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활(李活)이었다. 이육사라는 이름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30년 10월『별건곤』이란 잡지 5권 9호인데, 여기에서 이육사는 목차에는 이활, 본문에는 이육사(二六四)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 시절 그의 수형번호에서 유래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숫자 二六四로 표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이후 그는 '고기를 먹고 설사한다'는 뜻을 가진 육사(肉瀉)라는 이름을 쓰며 세상을 조롱하기도 했고, '역사를 죽인다'는 뜻을 가진 육사(戮史)를 사용하며 혁명을 꿈을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육사(陸史)이다. 아마도 다른 '육사'에 비해 노골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그의 시「청포도」로 돌아가자.「청포도」가 쓰고 발표된 시점은 그가 가장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할 당시였다. 이육사 작품 대부분은 1933년 이후에 쓰였고, 특히 1937년 이후에 가장 활발하였다. 1937년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주거를 옮긴 해였다. 그가 처음 서울에 자리를 잡은 곳은 명륜동이었다. 그리고 1939년 종암동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 그는 그곳에서 3년 가까이를 살며 그

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처음 언급한 「청포도」,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절정」도 그의 종암동 시절의 작품이다. 종암동이라는 공간이 그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곳이 그에게 일종의 '사색처(思索處)' 역할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41년 폐질환으로 종암동을 떠난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기름진 삶을 살지 말거라.”

이육사 따님, 이옥비 여사 인터뷰

조국의 독립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오시길 바랐던 이육사 선생님. 그 분에 대한 원고를 마무리하던 12월 어느 날, 문화원에 한 손님이 찾아오셨다. 바로 이육사 선생님의 따님 이옥비 여사.

아버지 이육사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 멀리 안동에서 시작하여 서울 성북구까지 이르렀는데, 향토사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성북문화원까지 찾아오셨다. 이육사 선생님에 대한 원고를 준비하며 궁금증이 생겨나던 무렵, 때마침 찾아온 정말 반가운 손님이었다.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육사 선생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Q : 먼저 이육사 선생님께서 언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가족들 전부가 처음 대구에서 성북동으로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같이. 그때가 1928~29년 쯤으로 알고있어요.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Q : 그럼 이육사 선생님도 함께 지내셨던 건가요?

A : 아니에요. 따로 나와서 지내셨어요. 아버지(이육사)는 먼저 문화촌에 가서 사셨어요. 그때 첫 딸을 낳았는데, 거기서 첫 딸이 안타깝게도 백일 안에 돌아가셨죠, 아파가지고. 거기서는 근데 호적도 안 올리고 지내서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 뒤에 명륜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Q : 그럼 분가해서 문화촌에 갔다가 명륜동으로 가신 거군요.

A :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종암동 62번지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 당시 독립운동하시니까 많이 왔다갔다하셨어요. 큰아버지 이원기 선생도 같이 독립운동하셨고.



이육사 생가가 있던 종암동.
지금은 빌라가 두 채 들어서있다



성북문화원 앞에서 이육사를 연구해 온 향토사연구팀과 함께

Q : 그렇다면 이육사 선생님의 다른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A :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앞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둘째시고, 셋째 이원일 어른, 넷째 이원조 어른. 이 분들은 다 월북하셨어요. 셋째는 호가 수산이라고 서예가로 유명했어요. 넷째는 여천이라해서 평론가로 또 유명했죠, 덕혜옹주의 6촌 동생하고 결혼하셨고. 다섯째 이원창 어른은 당시 조선일보 지국장도 하셨었는데, 해주에 형님들 어디계신지 수소문하러 가셨다가 영영 소식이 끊겼죠. 나중에 알고보니 폭격 당해서 사망하셨다고. 막내 이원홍 어른은 스무살도 안 돼 일찍 돌아가셨고요.

Q :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순국하시고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셨잖아요? 그 뒤에 이장된 것이 60년대였나요?

A : 정확히 1962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Q : 그럼 묘지번호나 묘의 위치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A : 모르겠어요. 위치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산소, 할아버지 산소, 큰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했었어요, 넷을.

Q : 여사님께서는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 고향의 생가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A : 저는 지금 안동에 살고있습니다. 안동 이육사문학관 옆 목조 고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던 생가는 일가가 전부 서울로 올라올 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집안 어른께 팔았다고 들었어요. 대구 남산동의 생가는 지금 찾아보니까 2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집은 이미 다 없어졌고, 아버지 흔적마저 다 없어질 상황이라 큰일났다 싶었죠. 그때 어떤 고마운 분께서 대구시장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올라갈 자리라 그 곳을 보존하는 건 어렵고, 대신 부근에 근대문화거리라고 이상화 시인 생가, 이런 곳들이 쭉 모여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저야 너무 좋았죠.



Q :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여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A :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생활가예요.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던 분이니까 저희는 밥도 굶고, 아버지가 한 번도 돈을 제대로 갖다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숙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건어물도 팔고, 미곡도 팔고. 제가 알기론 아마 군수품도 취급했었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여장부셨어요. 몸이 자그마한데, 강단이 있으셨죠.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 다 키워놓으시고 1984년 6월 10일날 돌아가셨죠.

Q : 그럼 어머니와 여사님의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A : 생활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저희들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모셨거든요. 양자로 들어온 동생이 있고, 며느리도 참 착했지만 그래도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제사가 있으면 (동생집으로) 내려가시고 그랬죠.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일반 고부지간이 아니에요.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이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출신인데, 옛날엔 딸 공부시키면 팔자세진다고 해서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공부를 배운적이 없는데, 할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몇 번 각오를 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했지요.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나서 이대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3일 간을 굶었는데, 제가 옆에서 엄마 배고프니까 밥해먹자 이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았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Q : 성함이신 옥비라는 이름은 이육사 선생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있는 건지요?

A : 기름질 옥(沃) 자에 아닐 비(非) 자를 썼어요. 기름이 아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름지지 말라, 부유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고 담백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사시던 삶을 저한테 무게를 얹어주신 거예요.



이육사 생가가 있던 곳에서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과 함께

Q : 지금 그렇다면 이육사 선생님 기리는 문화제 등은 안동에서 하고 계신가요?

A : 네, 안동에서. 아버지 기일인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꼭 있어요. 아버지 생일은 음력이라 날이 매년 바뀌니까 따로 하진 않고요. 그러니 성북문화원에서 저희 아버지 관련된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생신날 맞추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Q : 2016년에는 이육사 문학관을 어떻게 가꾸어갈 생각이신가요?

A : 지금 이육사 문학관은 65명 기준으로 지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지금은 1년에 거의 4만명이 오거든요. 도저히 수용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대지 70평을 늘리고 1, 2, 3층을 붙이고. 또 1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저녁에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콘도식 시설도 생각 중이고요. 또 북카페, 식당도 만들고, 다 겸비한 곳으로 고쳐갈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Q : 정말 기대되네요. 공사가 마무리 되면 꼭 한 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에서 이육사 선생님의 향취를 느끼며 이옥비 여사님의 생생한 말씀 또 한 번 듣고싶네요. 오늘 못 다 하신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먼 곳까지 오셔 긴 시간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후 성북문화원 사무국장과 향토사연구팀 일동은 이옥비 여사를 모시고 이육사 선생님의 생가가 있던 종암동으로 향했다. 이육사 선생님을 향한 학자의 무한한 호기심을 안고서.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딸의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서.

진행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2015년,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시도



딱딱한 학술회의는 이제,

"끝났다고 전해라~♬"

연극과 함께 한 4.19혁명 학술회의
노래와 함께 한 한국전쟁 65주년 학술회의

글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학술회의(學術會議) : 학술에 관한 사항 또는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등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는 모임. 특정 학문의 연구자나 실무자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회의로,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하는 형식의 토론회. 사전에서 정의하는 학술회의의 의미이다. 이런 학술회의는 나름 전문적이고 알찬 얘기들이 오가곤 하지만,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소 딱딱하고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성북문화원에서는 이런 학술회의를 딱딱함 속에서 꺼내주고 싶었다. 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2015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그간의 딱딱하고 지루한 학술회의에서 벗어나 눈과 귀가 즐거운 학술회의. 문화와, 예술과 함께하는 학술회의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① 4.19혁명 학술회의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1960년 4월 19일, 독재에 맞선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향한 거센 갈망을 거침없이 표출하였다. 이로 인해 이승만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한반도에 민주주의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4.19혁명이다.

성북문화원에서는 4.19혁명 55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4월 18일, 혁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국제원격회의실에서 4.19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4.19혁명 55주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회의는 대중들이 보다 쉽게 4월혁명의 정신과 의미에 접근할 수 있도록 4.19혁명을 현재적 의미를 돌아보는 연극「시선」(감독 차지성 · 극단 더늠)으로 시작했다.

연극「시선」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한 청년이 새로운 시선으로 4.19혁명과 그 당시 독재와 억압에 맞섰던 청년들을 바라보고, 4.19혁명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4.19혁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배우들의 눈부신 열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본격적인 학술회의에서는 4.19와 성북구, 도시 하층민 등 지금까지 잊혀졌던 4.19혁명의 주체들, 혁명 당시 시위가 일어났던 공간과 그 공간이 갖는 현재적 의미, 당시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등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주제들이 발표되었다.



4.19혁명을 다룬
연극「시선」의 한 장면


학술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이
혁명과 민주주의, 그 기억정치의 재구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해방가〉를 열창중이신
선소리산타령 이건자 선생님

② 한국전쟁 65주년 학술회의

"6.25전쟁과 미아리고개"

2015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5년째 되는 해이다. 이러한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성북문화원에서는 11월 6일, 한성대학교 창의관에서 6.25전쟁과 미아리고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예전부터 서울의 동북 관문 역할을 했던 미아리고개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수도 방어 전투의 현장이자 북한군 후퇴시 남한의 주요 인사들이 북으로 끌려갈 때 거쳐간 길목이다. 1956년 가수 이해연이 부른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가요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미아리고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아리고개 전투를 목격하였던 6.25 참전유공자 장남용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목격담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밴드 빈티지 프랭키를 초청하여 전쟁의 참담함과 분단의 아픔이 진하게 담겨있는 1950년대 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등의 노래를 라이브 연주와 함께 감상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조교 이건자 선생님의 애절한 <해방가> 또한 감상하였다.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6.25 참전용사 분들 중 몇 분은 노래를 듣고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여, 우리의 가슴 한 켠을 아리게 만들어주었다.



합동군사대학교 김유석 교수의 발표를 경청중인
청중들의 모습



밴드 빈티지 프랭키가
1950년대 가요를 노래하고 있다.



'6.25전쟁과 1950년대의 대중가요
(본지 31페이지 수록)'를 주제로 발표 중인
성공회대학교 이준희 교수

발표는 세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6.25전쟁 당시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서울 외곽 방어작전, 당시 월 · 납북의 실상, 1950년대 대중가요의 동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나서서 발표를 진행했다.

2015년,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시도

독립운동의 초석을 마련한 민족지도자이자 대표적 아나키스트,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만주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우당 이회영 선생. 그에게는 조선에 남겨진 아내, 이은숙(1889~1979) 여사가 있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독립지사 우당 이회영과 그의 부인 고 이은숙 여사의 삶을 소재로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감독 차지성 · 극단 더늠)를 제작하였다. 이은숙 여사는 해방이 된 후 성북구 정릉에서 여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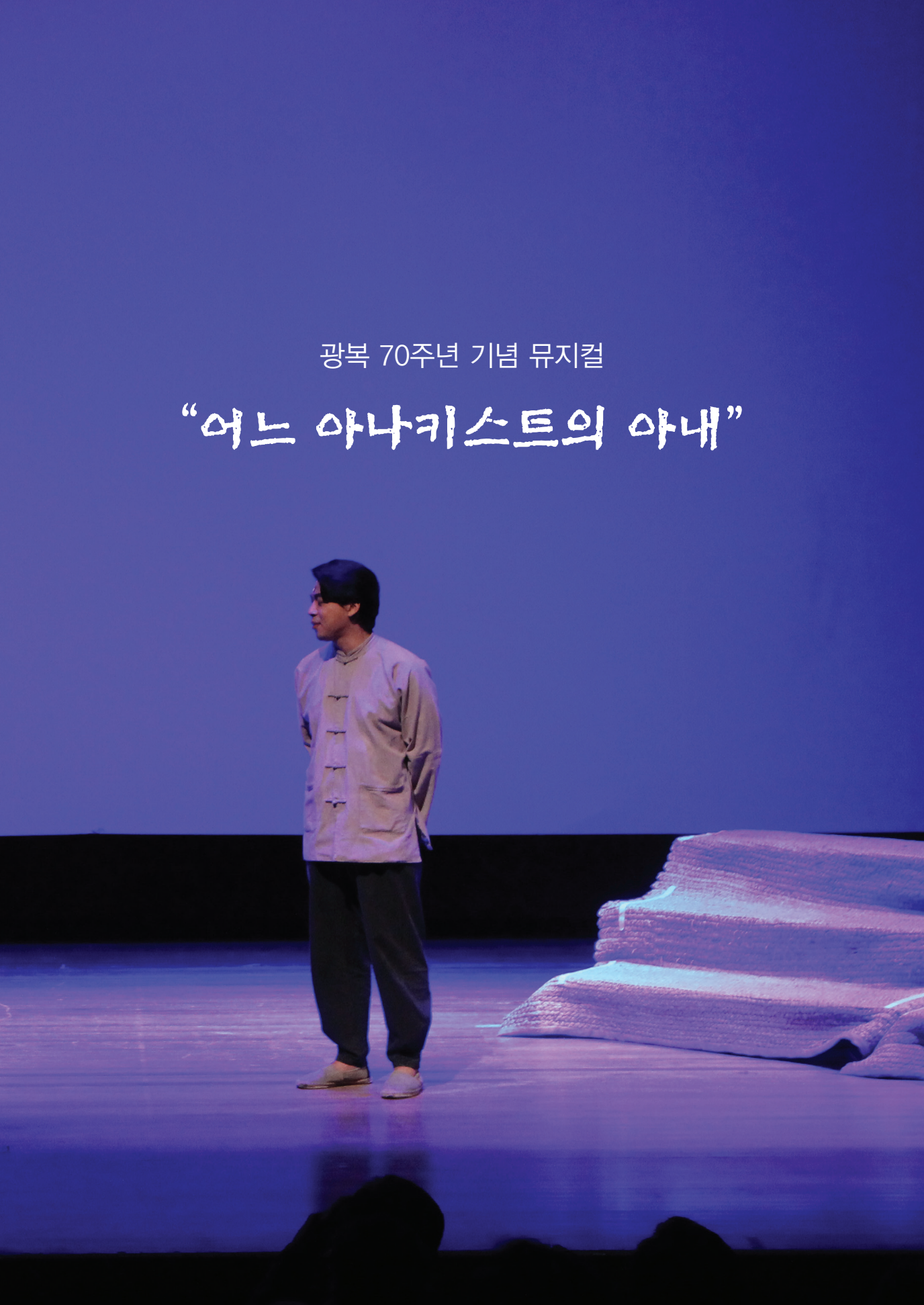
독립지사의 아내로서 극도로 어려운 형편에서 남편을 내조했던 이은숙 여사의 삶. 그리고 이은숙 여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조국을 향한 열정과 독립운동.

이를 때론 경쾌하게, 때론 애절하게 부른 노래들과 함께 꾸민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그 현장들을 사진 속에 담아보았다.



광복 70주년 기념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하나가 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자는
결의에 찬 노래를 부르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동지들.

나라 걱정, 남편 걱정…
조선에 홀로 남겨진 이은숙 여사의 마음은
한없이 어둡기만 하다.





만주에 정착하여
'경학사',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차례로 설립하며 조국의 독립에 몸바쳤던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동지들.



만주로 떠나는 우당 이회영 선생.
그리고 그런 남편을 미소로 떠나보내는
이은숙 여사.



끝내 저승에서야 만나게 된
우당 이회영 선생과 이은숙 여사.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니
하염없이 슬프기만 하다.

2015년,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시도

갈 곳 잃은 우리네 인생을 담아

김광섭 탄생 110주년 성북천 깃발전

글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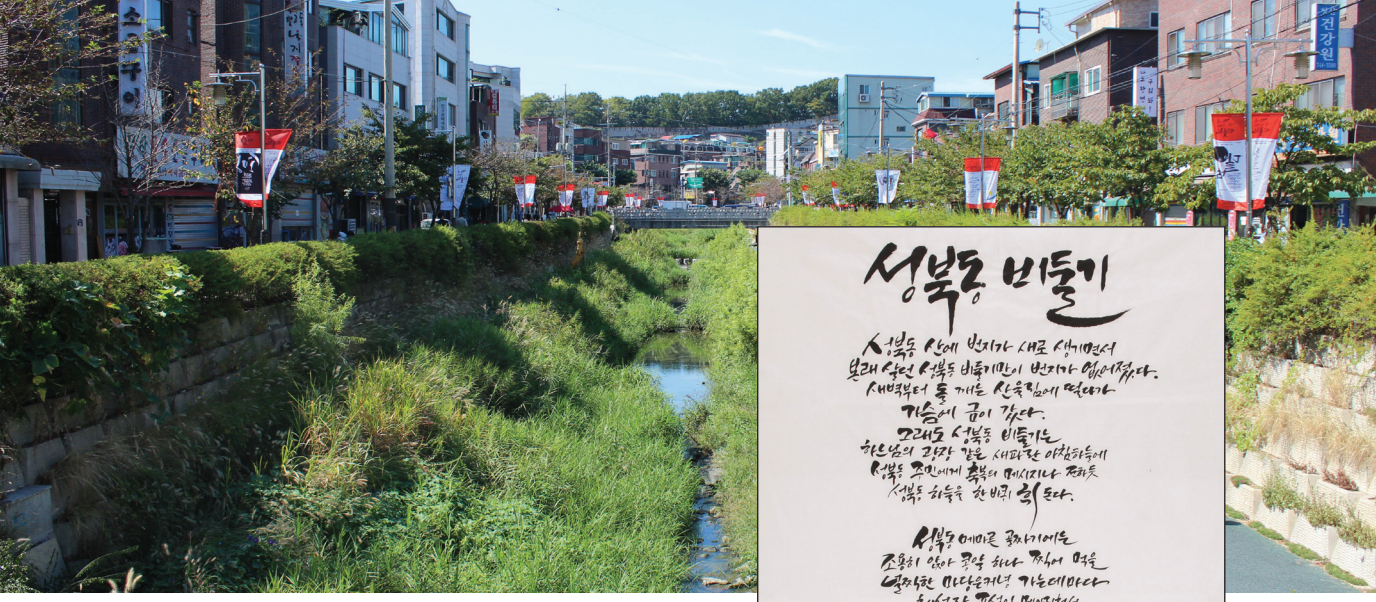
–「성북동 비둘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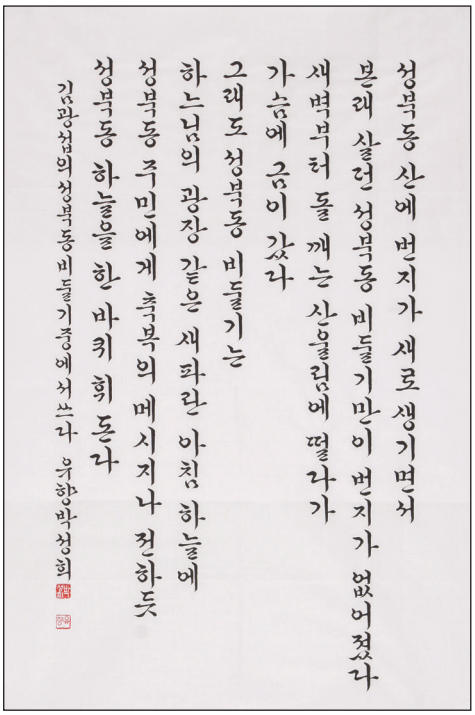
해방 이후 발표된 한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성북동 비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1960년대 근대화·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삶의 '번지'를 잃고 떠돌아야만 했던 한국인들의 상황을, 저 성북동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둘기의 모습을 빌어 노래한, 시인의 평범하지만 정확한 직관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김광섭(1905~1977)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를 구상한 때는 60년대 후반으로 성북동 자택의 병상에서였다. 김광섭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동경憧憬』(1938), 『마음』(1949), 『해바라기』(1957) 등과 같은 시집을 꾸준히 발표했을 뿐 아니라 문예지 『자유문학』의 발간을 주도하며 문단의 원로로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러던 그가 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다 뇌출혈로 졸도한 것은 1965년의 일이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시인은 다시 펜을 들었다. 병상에서 써나간 시는 전과 확연히 달랐다. 지난날 작품에서 보여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던 언어가 아니라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시어로 써나간 시들은 삶의 본래적 기쁨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동체적 삶의 이상을 노래하였다. 「성북동 비둘기」를 비롯하여 「생의 감각」, 「저녁에」, 「산」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한 걸작으로, 모두 제 4시집 『성북동 비둘기』(1969) 에 실렸다. 김광섭이 한국문학사에 지워지지 않을 뚜렷한 이름을 남긴 것은 이 시집 한 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성북동 비둘기 캘리그라피 작품 – 이성미

성북동 비둘기 서예작품 – 박성희



김광섭은 1905년 9월 22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중동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3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대통령 공보비서, 대한신보사 사장, 경희대 교수, 세계일보사 사장 등 공직에 몸담기도 하였다. 김광섭이 성북동 168-34번지에 집을 얻어 생활한 기간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약 4년간. 그러나 투병 생활에 접어들고 어머니를 여의고부터는 동소문동을 거쳐 미아동으로 이사했다. 1977년 향년 72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2015년은 김광섭 탄생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성북문화원은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바로 '성북천 깃발전–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김광섭의 시를 주제로 서예와 캘리그라피 작품을 공모, 92점을 선정하여 성북천변의 가로등에 현수막을 걸어 전시했다. 2007년 복개를 걷어내고 서울의 대표적 하천공원으로 거듭난 성북천변을 걸으며, 김광섭의 명시들을 아름다운 글씨와 함께 감상하며 이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다독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였다.

'5분 속에 담아 구운 성북동의 아름다움'

2015 성북골목극장에 가다

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성북문화원에서는 성북동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5분 내외의 초 단편영화에 담아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재해석했다. 총 7명의 감독이 참여했으며, 이들에 의해 재탄생한 성북동의 모습들을 상영회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성북동의 색다른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7개의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시 빚어낸 성북동의 모습.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롯이 감독 자신만의 씬(scene)과 컷(cut)으로 창작해낸 성북동의 모습. 이렇게 재탄생된 2015년 성북동의 모습을 지면을 통해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자.



〈2015 성북골목극장 공동상영회〉의 모습.
사회는 (주)아트버스킹의 김경서 대표.



"오빠 오고있어?, 나 여기 한성대입구역, 빨리 와."

—『기다림』中, 박용 감독

한 여성이 성북동 끝자락에 위치한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를 나서며 연인과 통화를 한다. 그렇게 영화는 시작되고 이 여성의, 연인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도 시작된다. <2015 성북골목극장>의 한 작품으로 제작된 박용 감독의 초단편영화『기다림』의 첫 장면이다.

2015년 무더운 여름, 성북문화원에서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되었다. 고즈넉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낡고 허름하지만 추억이 담겨있는 곳.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성북동의 모습을 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다 새로운 매체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2015 성북골목극장>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성북동을 특정 컨텐츠로 담아보려는 시도는 수없이 많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출판물과 무대 위의 연극·뮤지컬 등이 많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를 조금 더 신선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또 제작된 것을 영구히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초단편영화를 제작·상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2015 성북골목극장> 프로젝트는 다채로운 색을 가진 일곱 명의 감독 선정과, 이들과 함께 진행한 성북동 탐방과 워크샵을 진행했다. 뒤이어 10월, 감독들의 상상력을 통해 일곱 편의 성북동 초단편영화가 탄생되었고, <2015 성북골목극장> 공동상영회에서 그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성북동의 모습을 5분 내외로 담아낸 일곱 개의 초단편영화. 이 면면을 한 번 살펴보자.

#1. 빵, 커피 그리고 성북동 _ 김사빈 감독





성북동에 위치한 카페와 빵집,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성북동을 지키며 주민들과 함께 한 세월과 따뜻한 마음을 커피와 빵으로 전한다.

감독: 김사빈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건강기능성식품협회 홍보영상 제작 등
눈보라 엔터테인먼트 소속 예술가
극단 라나앤레오 대표

#2. 어느 맑은 날 _ 권남혁 감독





성북동에서 우연히 마주쳐 서로를 알아가는 두 명의 남녀. 풋풋하고 설레이는 영상.

감독: 권남혁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4학년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영상소모임 어메이징필름(A.Flim) 대표
M/V 「처용」 (2014)
역사문화학부 홍보영상 제작

#3. 심우장 가는 길 _ 강상우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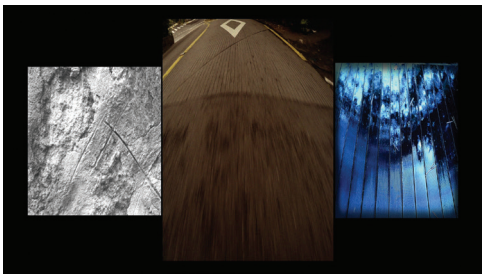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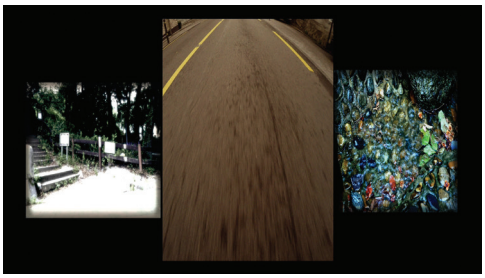


심우장 가는 길이 항상 깨끗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다시피 여겨지던 깨끗한 길,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많은 노력들.

감독: 강상우
「백서」(2010), 「소와 함께」(2013), 「안마도」(2014), 「클린 미」(2014)

#4. one way around _ 이우주 감독





성북동을 따라 흐르는 길, 그리고 그를 따라 흐르는 새로운 시선

감독: 이우주
「Last interview」, 「To become a girl」, 「Nineteen Questions」, 「Emotion of colors」, 「HIDE AND SEEK IN NIGHTMARE」
2014 Student Experimental Film Festival 홍보영상 제작

#5. 기다림 _ 박용 감독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백석과 자야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의 재해석

감독: 박용

現 C&M 뉴스 기자 및 앵커

토론 및 대담, 지방선거 생방송 등 다수 진행

#6. Peach _ 정재훈 감독





성북동 북정마을에 사는 두 젊은 청년, 그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있을까, 또 그들이 사는 북정마을은 어떤 곳일까.

감독: 정재훈

〈단편〉

「누군가의 마음」(2004), 「2005.1 홍제천 물」(2005), 「open light」(2006), 「한낮, 공처럼」(2006)

〈장편〉

「호수길」(2009), 「환호성」(2011), 〈옴니버스〉, 「서울연애」(2013)

#7.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 _ 최숭기 감독



북정마을에서 우연히 첫키스의 상대를 마주친 남녀.
그리고 뒷걸음쳐서 사라진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



감독: 최숭기

「얼굴」(1999), 「희생의 꽃」(1999),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2000), 「코딱지」(2001), 「세 사람」(2003), 「자매는 모두 떠났는가」(2005), 「뒷모습」(2006), 「뜨거운 커피」(2007), 「기타맨」(2010), 「나는 기타맨」(2012), 「하늘과 빌딩과 도로와 시」(2014)

일곱 명의 감독들이 직접 바라본 성북동의 모습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불어넣어 그 상상력의 숨결로 피어난 일곱 송이의 다양한 이야기들. 이 초단편영화들을 직접 보고싶다면 성북문화원 페이스북에 접속하거나, 유튜브에서 '**성북골목극장**'을 검색해보자.



성북동의 아름다움을 초단편영화로 만들어낸
감독 및 스태프, 그리고 배우들.

2015년 상반기 역사문화탐방기 충남 서산 · 예산

내포*에 불어온 역사의 바람을 따라, 나에게 불어온 부처의 미소를 따라

글 | 성북문화원 대학생기자단 1기 김경현(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기리기위해 세워진 충의사

나에게 역사란 그저 과거의 일을 외우는 딱딱하고 고루한 학문이라는 인식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문화탐방을 가게 되었을 때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역사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던 내가 역사문화탐방에 가면 즐거울까,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영혼없이 그저 따라다니기에 그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모두 기우에 불과했다.

많은 성북문화원 회원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2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충남 예산에 위치한 윤봉길 의사의 생가였다. 그 곳에는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광현당과 생가인 저한당, 그리고 기념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윤봉길 의사는 오직 조국을 위한 일념으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연 및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요인들을 암살하였다. 이처럼 조국을 되찾기 위한 윤봉길 의사의 투쟁을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의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알게 된 후 충의사 앞에 있는 태극기를 마주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윤봉길 의사의 조국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뒤로 하고 다다른 곳은 수덕사였다. 수덕사는 백제시대 창건되어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이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었을 만큼 목조건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그

* '내포'는 가야산 주변과 현 충청남도 서산, 예산, 홍성 등의 지역을 하나로 일컫는 옛 지명으로 충남의 내륙과는 다른 역사적 흐름과 독특한 문화상을 가지고 있다.



1



2


3


4

런지 날이 매우 좋아 문화원 회원님들께서 즐겁게 추억을 찍으시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 얼굴에 부처님이 잠깐 다녀가신 것일까.

수덕사에서 나와 맛있는 점심식사를 한 후, 보원사지에 닿았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보원사지란 말 그대로 보원사가 있던 자리를 말한다. 지금은 아쉽게도 절이 있던 터와 당간지주, 석조, 석탑 등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들의 보존 상태가 좋아, 그 당시의 돌 다듬는 기술을 자세히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토록 융성했던 불교가 쇠퇴일로를 거치며 이렇게 자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통해 종교의 부침, 종교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보원사지를 벗어나 마애여래삼존상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마애여래삼존상은 서산 가야산 높은 곳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로 가파른 언덕과 많은 계단을 오른 끝에서야 다다를 수 있었다. 평소 건강을 자부하던 나도 무척 힘들단 생각이 들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회원님들의 힘든 표정은 마애여래삼존상을 마주하고나서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애여래삼존상의 은근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자비로우면서 소박한 미소를 마주하니 힘들여 올라온 보람과 함께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에 따라 그림자가 변하며 그 미소의 모양









1_ 수덕사 대웅전 / 2_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이 수덕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3_ 수덕사 포대화상 / 4_ 수덕사 백의관음상
5_ 보원사지 석탑 / 6_ 보원사지 부도 / 7_ 서산 마애여래삼존상 / 8_ 해미읍성 진남문

과 느낌도 달라진다고 하니, 다음에는 오전에 한 번 와보고 싶어졌다.

마애여래삼존상의 미소로 배웅을 받고 길을 떠난 우리는 탐방의 마지막 해미읍성에 도착했다. 해미읍성은 충남 서산 해미면에 위치한 조선시대에 건축된 성으로, 현재까지도 보존이 아주 잘 되어있는 곳이다. 이 곳은 매우 넓어서 조선시대 당시 성의 규모 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아름다운 꽃과 돌담, 기와와 파란 하늘이 한 데 어우러져 가족들끼리 산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오후, 져가는 해를 뒤로 하고 해미읍성을 나섰다. 역사문화탐방은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특히 역사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나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고, 책으로만 배웠던 역사만이 아니라 실제로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바쁜 일상 속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콘크리트와 네온사인 대신, 이렇게 역사를 따라서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짧게나마 행복했다. 이런 상념에 젖어있다 무심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그 곳엔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2015년 하반기 역사문화탐방기 경기 여주 · 이천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거울이다

글 | 성북문화원 대학생기자단 1기 김재현(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그저 즐거웠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성북문화원과 함께한 역사문화탐방은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해외에 거주한 나에게, 오로지 글로만 읽었던 나의 무지한 눈을 깨워주는 신선하면서도 왠지 익숙한 경험이었다. 쌀쌀하기 그지없었던 가을 날씨도 탐방일 하루만큼은 따뜻한 햇살로 우리를 맞이했었다.











1_ 광주요 도자기 전시관 / 2_ 유약을 바르고 말리는 중/ 3_ 광주요 직원의 도자기 제작과정 설명 / 4_ 도자기 가마

처음부터 유쾌한 출발이었다. 버스 안에서 어르신들과 성북문화원 선생님들 간에 역사적 지식을 통한 만담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의 모습은 나의 귀를 즐겁게 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어느새 도착한 첫 번째 도착지는 우리 고유문화에 뿌리를 둔 '광주요 그룹'의 전통 도자기 공장이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 이미 도자기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완성된 도자기를 보면 그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제조 과정을 본다면 그 제조 과정 또한 감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도자기 공예사들의 손길을 거쳐 하나의 도자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수만 가지의 노력과 동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색다른 경험을 뒤로 한 채 버스를 타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영릉(英陵)이었다.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위인으로 뽑히는 조선 4대 세종과 부인 소헌왕후 심씨가 합장되어 있는 곳으로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한 봉분에 서로 다른 방을 갖추고 있는 합장무덤이었다. 모든 게 아름다웠다. 자연과 푸른 벌판이 펼쳐져 있는 능은 과연 장관이었다. 외국인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입구부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이유 없이 신이나기 시작했다. 영릉을 한 바퀴 돌며 구경한 후 입구로 돌아왔을 때 다시 바라본 영릉의 모습은 산들을 병풍같이 두른 위대한 위인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아쉬움과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은 명성황후 생가였다. 버스에서부터 명성황후에 관한 일화들과 평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꼭 한편의 책이 만들어질 정도로 다양했었다. 시간은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라면 빨리 가는 것처럼 어느새 명성황후 생가에 도착하였다. 명성황후는 조선 26대 왕 고종의 비(妃)로 고종이 국정을 의논하는 가장 가까운 상대였으며 외국의 세력들이 고종보다도 더 예의주시했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비였다고 한다. 이미 드라마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성황후여서 그런지 낯설지 않게 다가왔으며 그녀의 생가에서는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들과 그녀의 어릴 적 삶들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1

1_ 세종대왕의 묘인 '영릉' 전경 / 2_ 해시계 /
3_ 탐방에 참여한 회원분들이 박수진 향토사연구팀장의
명성황후 생가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4_ 명성황후 생가 전경


2


3


4

다음 방문한 곳은 '신륵사'로 경기도 여주군 봉미산에 위치한 사찰이었다. 문헌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찰은 대부분 거친 숨 고르며 오르는 산중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느 사찰과 다르게 굽이굽이 계곡을 돌거나 거친 숨 고르며 오르는 능선도 아닌 강안 평탄지에 자리해 힘들이지 않고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찰들과는 다르게 강을 옆에 낀 신륵사는 무언가 자유로우면서도 근엄한 느낌이었고, 아름다운 자연관경과 어울러져 있는 한편의 영화 촬영지 같았다. 누구나 이 아름다운 관경을 보게 되면 '신륵사'의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었다. 어머님들 사진촬영을 도와주며 간간히 나의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들은 나의 첫 탐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관경과 엄청 다양한 석탑, 건축물들이 있는 '신륵사'는 유독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장소였다.

1_ 신륵사 앞에서 단체사진 / 2_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 3_ 신륵사 앞을 흐르는 남한강



1


2


3









1_ 화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_ 화요 공장 내부 견학 / 3_ 화요 특제 '술 숙성항아리' / 4_ 화요 시음회

마지막으로 '화요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불로 다스려진 존귀한 것'의 뜻을 지닌 '화요(火堯)'는 한식과 함께 세계 시장에 함께 나갈 우리 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든 야심작이라고 한다. '화요 공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술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숙성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는 정말 나의 코를 자극했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냄새 또한 맛있다고 표현하시어 웃음을 자아내시기도 했다. 제조 과정을 둘러본 후 강당에 모여 화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 어르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웃음꽃이 피셨다.

이렇게 전체적인 역사문화탐방 일정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탐방을 떠난 모든 이들의 아쉬운 마음들을 아는 듯이 비가 내렸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인지 버스 안은 밖과 다르게 고요하고 따듯했다. 나는 어르신들을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어 보며 변하지 않는 사진처럼 어르신들의 순수하고 유쾌한 웃음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15년 성북문화원 소식

2015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2015 을미년 한 해에도 성북문화원 회원들은 외부에서 치러지는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회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 가운데에는 문화강좌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감춰뒀던 열정을 발견하여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2015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심사 모습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문예창작 실기	소재수	2015 격월간 문예지『서정문학』7 · 8월호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이승환	2015 천주교 서울대교구『서울주보 2000호』기념 신앙체험수기 금상
한문서예	박영옥	2015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은상
		제 18회 신사임당 · 이율곡 서예대전 한문서예부문 대상
		제 26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차하
		제 1회 오산독산성 전국휘호대회 일반부 한문부문 장려상
		포천문화원 주최 전국휘호대회 일반부 한문부문 최우수상
	정진혁	2015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장려상
	문병각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주최 제32회 대한민국 서예대상전 전서부문 특선
사군자	백예선	2015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금상
	박완택	제 18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우수상
스포츠댄스	성북문화원 스포츠댄스반	제 1회 고양시 댄스스포츠 연합회장배 전국 프로&아마추어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일반부 포메이션 최우수상
선소리 산타령	나명순	제 1회 아산 전국 국악 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제 3회 부천 전국 국악 경연대회 일반부 은상
	서옥희 외 9명	제 3회 부천 전국 국악 경연대회 단체부 대상
	나명순 외 3명	제 1회 아산 전국 국악 경연대회 단체부 금상
	김주형	제 1회 아산 전국 국악 경연대회 명창부 대상
	이건자	선소리산타령 지부 구리시장 표창
청소년 사생대회	윤해나(석계초1)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금상
	이연지(동신초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동상
	김상엽(돈암초6)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동상
	강연서(석계초3)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강연아(석계초1)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김상훈(돈암초3)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남연서(정덕초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박서연(석계초1)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유현서(석계초1)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이윤지(동신초4)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고태원(돈암초5)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5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2015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매년 화창한 여름과 선선한 가을이 되면 성북천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성북천 깃발전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천변을 수놓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6년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매해 여름 · 가을에 성북구민들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깃발을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는 총 367점,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는 총 116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지만,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아쉽게도 20개의 작품만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어린 꿈나무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안전한 동네 만들기



대상
장서아 (석계초 4)
제목 : 안전하고 살기좋은 sb



최우수상
고 은 (석계초 2)
제목 : 전기도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최우수상
이채원 (석계초 6)
제목 : 우리가족 세이프존 성북



우수상
이민선 (석계초 3)
제목 : 도로에서 핸드폰과 이어폰은 위험해요!



우수상
서채은 (정덕초 5)
제목 : 교통 안전 포스터



우수상
정해린 (돈암초 3)
제목 : 학교폭력 싹둑



가작
곽서준 (석계초 4)
제목 : 하하호호 안전지대



가작
양태현 (정덕초 3)
제목 : 행복한 꿈이 자라는 우리동네



가작
지연서 (석계초 4)
제목 : 한 번 꺾인 상처! 돌이킬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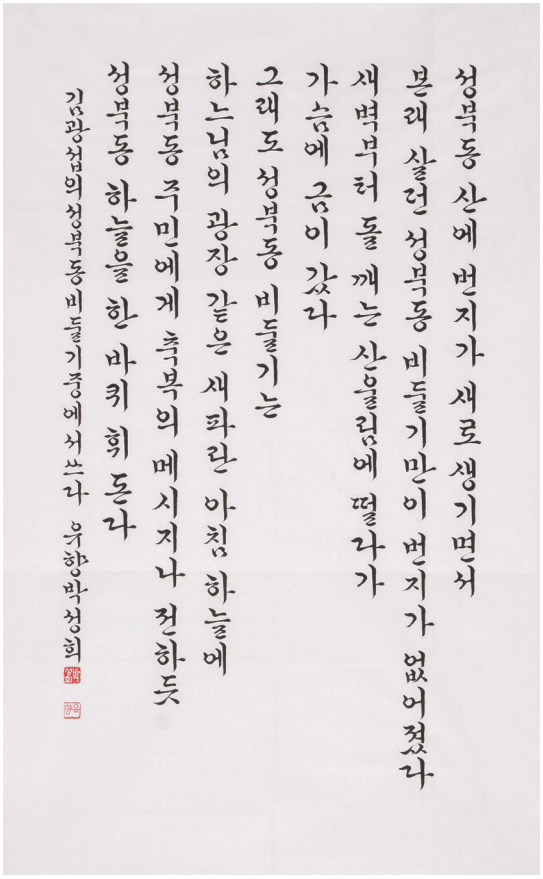


가작
김서연 (정릉초 6)
제목 : 무심코 내던진 한마디,
마음의 큰 상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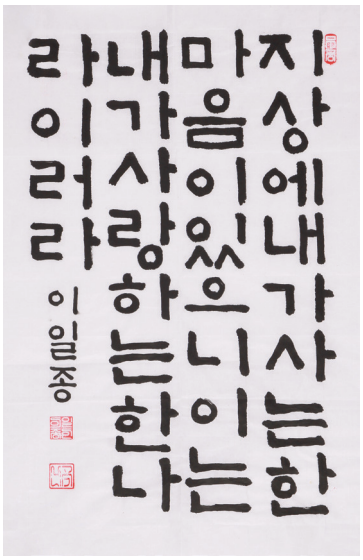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시인 김광섭 탄생 110주년 기념 "시인 김광섭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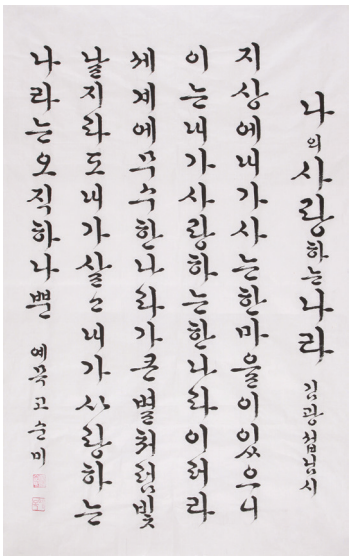
[한글서예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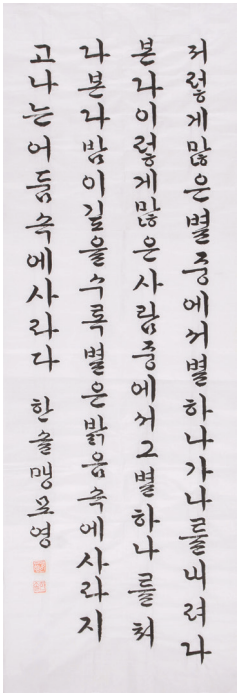
대상
박성희
제목 : 성북동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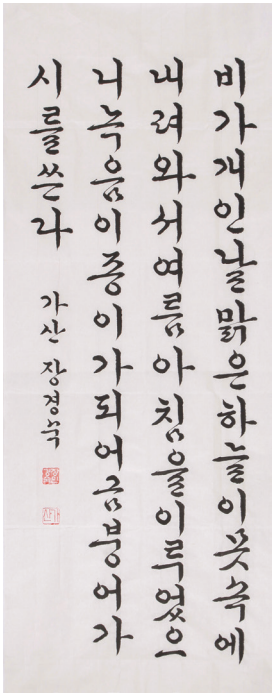
최우수상
이일종
제목 : 나의 사랑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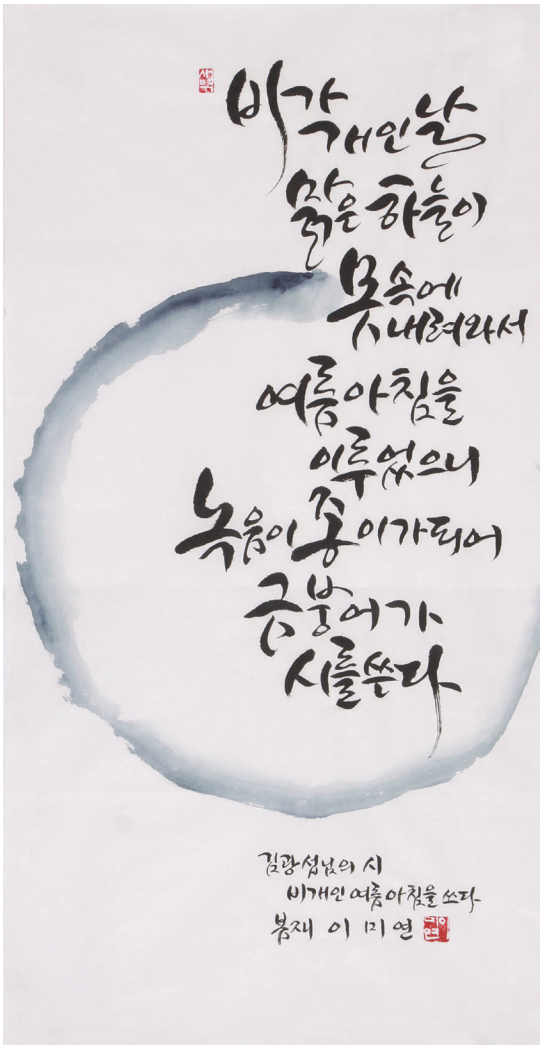
최우수상
고순미
제목 : 나의 사랑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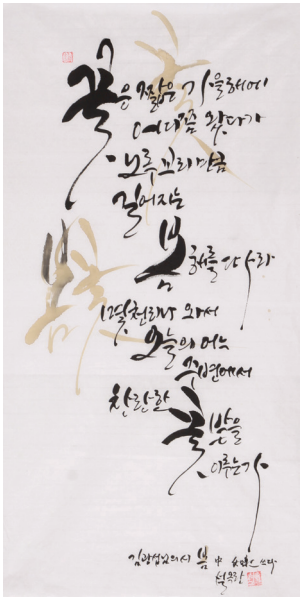
우수상
맹묘영
제목 : 저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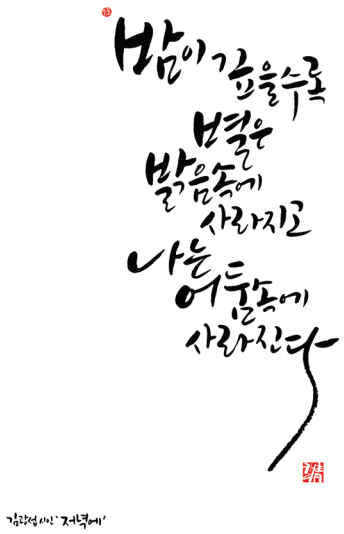
우수상
장경숙
제목 : 비개인 여름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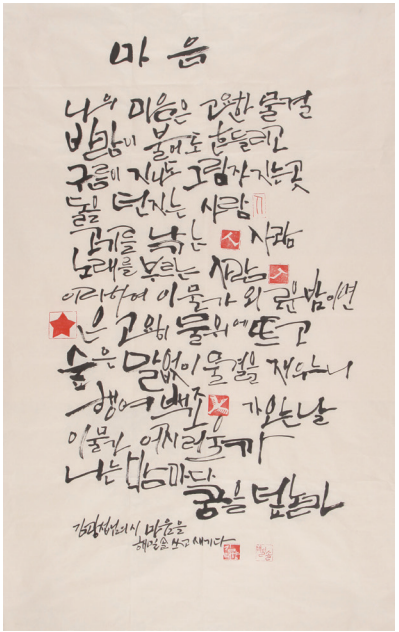
대상
이미연
제목 : 비개인 여름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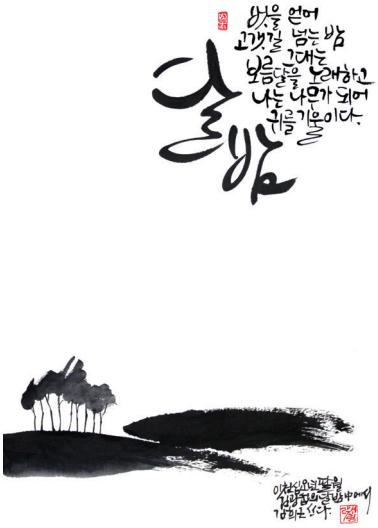
최우수상
설옥란
제목 : 봄



최우수상
이정원
제목 : 저녁에



우수상
김태향
제목 : 마음



우수상
김희근
제목 : 달밤

사진으로 보는 2015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성북문화원은 2015년에도 지역문화의 발전과 구민 문화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5년의 끝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활동과 성과를 거두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성과를 한 데 모아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으니 함께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문화원 회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강좌

성인 강좌(26개)

경기민요, 규방공예,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단소, 동양의 역사와 문화유산,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사군자A, 사군자B, 선소리산타령, 수묵산수화A, 수묵산수화B, 순환요가,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장구, 한국무용(초중급), 한국무용(심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글서예, 한문서예A, 한문서예B

엄마랑아기랑 강좌(3개)

트니트니 키즈챔프(13~19개월), 트니트니 키즈챔프(15~24개월), 트니트니 키즈챔프(27~36개월)

어린이 강좌(8개)

어린이 역사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유아발레A, 유아발레B


트니트니키즈챔프


유아발레


원어민영어회화


스포츠댄스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시낭송가 양성과정



장구



한국무용

향토문화 계승 및 문화탐방 사업





4 · 19혁명 55주년 기념 학술회의 “성북, 4 · 19혁명의 북을 울리다”





한국전쟁 65주년 학술회의 “6 · 25 전쟁과 미아리고개”



제 22회 선잠제향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 다례재





인문학으로 보는 동아시아 특강



성북문화원 도서발간 기념 강연회



주민공감 토크콘서트 "성북동 오래된 미래"





성북골목극장 상영회



성북동 문화 · 예술지도 안내판 제작



광복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예술제







광복70주년 기념 8 · 15 토크콘서트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말하다"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성북동 청소년 역사문화여행



성북문화아카데미



찾아가는 어린이 예절교실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성북천 깃발전





2015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풍년'〈전시마당〉







2015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풍년'〈공연마당〉





2015 서울 문화원 엑스포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청소년 사생대회

지역문화복지실현 사업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공연





어르신 국악합창동아리 '성밖세상 소리단'





2015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희낙락'





성북구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2015 성북동 복지봉사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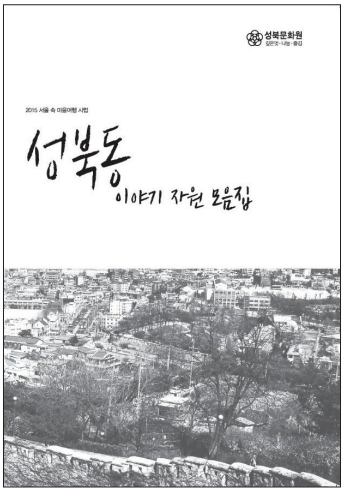


'정각사와 함께하는 아픈 어린이 돕기'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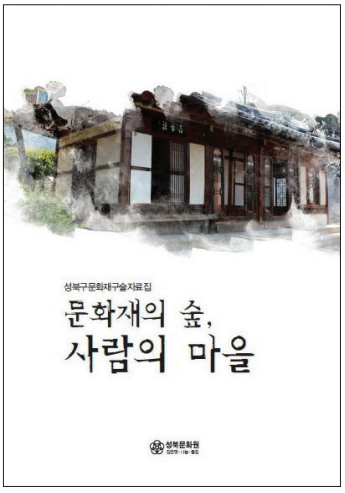
서적 발간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3
『성북동-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성북동 이야기자원 모음집』



문화재구술자료집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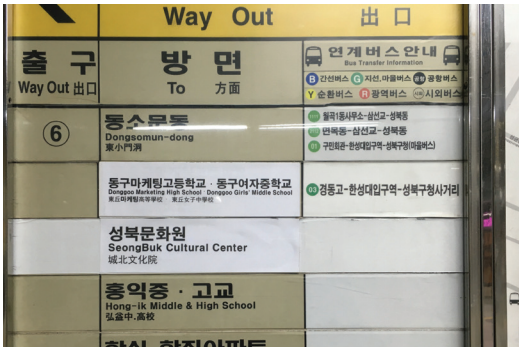
기타





버스 정류장명 '성북문화원'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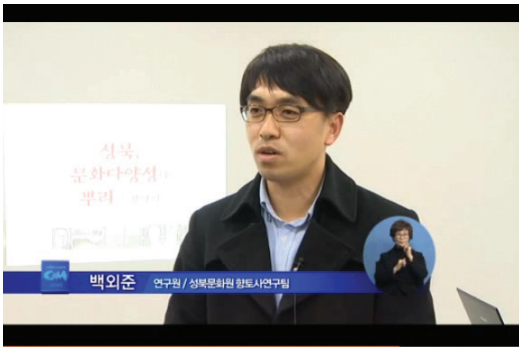


4호선 한성대입구역 안내도 '성북문화원'표기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방송]

성북문화원 특강 '성북, 문화 다양성의 뿌리를 찾아서'





C&M뉴스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 간 이유는?'(2. 13)

성북동 역사 인터뷰 : 향토사연구팀장 박수진





KTV 국민리포트 '성북동은 박물관…곳곳 문화유산'(3. 3)

제22회 선잠제향





C&M뉴스 '성북동, 전통제례와 세계 음식이 만나다'(5. 19)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예술제





C&M뉴스 '광복70주년 평화통일 예술제'(6. 8)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 다례재





BBS '만해스님 71주기 추모 행사 잇따라'(6. 26)





BTN 뉴스 '만해스님 추모행사 다양'(6. 29)





C&M뉴스 '문화공연으로 한용운 업적 기려'(7. 1)

성북문화원 도서발간 기념 강연회





C&M뉴스 '한양도성 탄생부터 복원까지'(7. 17)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C&M뉴스 '김광섭 시인 숨결, '성북천 깃발전''(9. 30)

서울 문화원 엑스포





C&M 생방송 씨앤앰이 간다 '서울 문화원 엑스포'(10. 22)





TBS '서울, 25색 문화 어울림 한마당'(10. 23)

2015 성북골목극장





C&M뉴스 '영화 속 성북동 이야기'(10. 26)

6.25전쟁과 미아리고개 학술회의





C&M뉴스 '성북문화원, 6.25전쟁과 미아리 고개 학술회의 개최'(11. 9)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 반





C&M 생방송 씨앤앰이 간다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 교실'(11. 17)

성북구 역사 인터뷰 : 사무국장 강성봉





C&M 기자가 만난 사람들 '성북구 향토사를 만나다'(11. 18)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신문]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1.29	파이낸셜뉴스	한성대,조태권 성북문화원장 초청 특강
2	1.29	미디어펜	한성대, '대한민국 문화의 도' 조태권 성북문화원장 초청 특강
3	1.29	머니투데이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30일 '대한민국 문화의 道' 특강 개최
4	3.02	동아일보	[수도권]서울 정릉동, 알고보니 '애국지사 마을'
5	4.15	아시아경제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6	4.15	시민일보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18일 개최
7	4.15	제이칸뉴스	성북구, '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개최
8	4.15	국제뉴스	성북구, '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개최
9	4.15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4.19 혁명 55주년 기념 학술회의 '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개최
10	4.15	시대일보	성북구,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개최
11	4.15	뉴시스	성북구, 18일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개최
12	4.15	한강타임즈	성북구 안에 4.19 혁명 있다!!
13	4.15	연합시민의 소리	성북구 안에 4.19 혁명 의 북을 울리다 '55주년 기념 공연'
14	4.15	여성종합뉴스	성북구 안에 4.19 혁명 의 북을 울리다 '55주년 기념 공연'
15	4.18	천지일보	[서울-성북구] '공연'이 있는 4.19혁명 55주년 기념 학술대회

'유우석(유관순 열사의 오빠), 이규창(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들), 장건상(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이들의 공통점은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살았던 '이웃사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왜 북악산 북편 외진 산동네에 모여 살았을까.

연구자들은 정릉이 지닌 지리적 장점에 주목했다. 성북구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은 1일 "정릉 일대는 경성(京城·일제강점기 서울의 지명)과 가까워 왕래가 쉽고 명동 남산 등지와 달리 일본인이 거의 살지 않아 독립활동을 기획하기 용이했다"며 "이런 점이 알려지면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평안도 등 한반도 동북권을 잇는 기점인 '미아리고개'와도 가까워 유사시 일본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유리한 점도 작용했다.

'[수도권]서울 정릉동, 알고보니 '애국지사 마을''中
「동아일보」, 2015. 3. 2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18일 오후 2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리는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개최

아시아경제 | 박종일 | 입력 2015.04.15. 10:45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4.19혁명 55주년을 기념해 공연이 있는 학술회의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를 개최한다.

18일 오후 2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리는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는 성북구가 주최,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과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소장 강제훈)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4.19 혁명의 계층적·지역적 성격을 역사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예정이며 네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 성북구 4.19학술회의 포스터

'4.19 전후 학생시위와 성북구', '수기 등 개인기록을 통해 본 4.19혁명', '혁명의 장소들과 데모대의 시위 양상', '4월 민중항쟁 시기 대학생들의 통일운동 전개와 성격'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별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정식 발표에 앞서 기념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극단 더늠(대표 차지성)이 제작한 뮤지컬로 당시 혁명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의 '시선'을 따라 55년 전 4월 격동의 현장으로 청중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4.19 혁명은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성북구는 4.19와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지역에 소재한 고려대학교가 매해 4.18 마라톤 행사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4.19 혁명과 그 배경이 되는 성북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현장으로 1960년4월18일 고려대 학생 3000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데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4월19일에는 삼선동 소재 한성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진영숙 양이 데모에 참가, 데모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미아리고개를 넘는 도중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진 양은 당시 순국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유서를 남긴 인물로 그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껍데기는 가라', '4월은 갈아엎는 달', 서사시 '금강'으로 잘 알려진 4월의 시인 신동엽(1930~1969)도 자택이 있는 성북구 동선동과 시내를 오가며 혁명을 지켜보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아시아경제」, 2015. 4. 15.

'누에 소년'

NEWSIS | 기사입력 2015-05-17 13:5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선잠단지(사적 제83호)에서 '성북문화다양성축제 2015 누리마실'의 일환으로 열린 제22회 선잠제향 재현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부대행사로 열린 누에 체험 을 하고 있다. 2015.05.17.

chocrystal@newsis.com

"누에 소년"
「뉴시스」, 2015. 5. 17.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6	5.07	아시아경제	성북구가 차린 세계문화 비빔밥 드세요
17	5.07	전국매일신문	(특집기획) 5월 성북구가 차린 세계문화 비빔밥 드세요~
18	5.07	환경매일신문	성북구가 차린 세계누리마실문화 비빔밥 드세요
19	5.07	한국시정신문	성북구, 문화다양성 축제 '2015 누리마실'세계문화 비빔밥 드세요~
20	5.07	국제뉴스	성북구, 성북문화다양성 축제 '2015 누리마실' 개최
21	5.07	한강타임즈	성북구, 성북문화다양성 축제 '2015 누리마실' 개최
22	5.07	헤럴드경제	성북구, 문화다양성 축제 '2015 누리마실' 개최
23	5.07	신아일보	성북구, 문화다양성 축제 '누리마실' 개최
24	5.07	여성종합뉴스	성북 문화 축제 2015 누리마실 개최
25	5.09	뉴스천지	[서울-성북구] 세계문화 비빔밥 '2015 누리마실' 개최
26	5.14	전국매일신문	'역사 · 문화 寶庫' 성북구 전통 · 세계 문화 대향연
27	5.15	아시아경제	'선잠제향' 17일 왕비·공주 퍼레이드
28	5.15	문화일보	성북구 17일 '문화다양성 축제'
29	5.15	파이낸셜뉴스	선잠제향' 17일 왕비 · 공주 퍼레이드
30	5.17	뉴시스	'선잠제향(先蠶祭享)'
31	5.17	뉴시스	선잠제향(先蠶祭享)
32	5.17	뉴시스	선잠제향(先蠶祭享), 왕비의 행차
33	5.17	뉴시스	'선잠제향(先蠶祭享)' 왕비의 행차
34	5.17	뉴시스	제22회 선잠제향 봉행 재현_1
35	5.17	뉴시스	제22회 선잠제향 봉행 재현_2
36	5.17	뉴시스	제22회 선잠제향 봉행 재현행사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7	5.17	뉴시스	성북구, 제22회 선잠제향 재현 행사 개최
38	5.17	뉴시스	재미있는 누에체험
39	5.17	뉴시스	날개가 퇴화돼 날지 못해요
40	5.17	뉴시스	누에 체험
41	5.17	뉴시스	재미있는 누에 체험
42	5.17	뉴시스	누에 체험
43	5.17	뉴시스	누에 소년
44	5.17	뉴시스	즐거운 누에체험_1
45	5.17	뉴시스	즐거운 누에체험_2
46	5.17	뉴시스	나방이 살아있는 진짜 누에고치_1
47	5.17	뉴시스	나방이 살아있는 진짜 누에고치_2
48	5.17	뉴시스	진짜 누에고치
49	5.17	뉴시스	'누에 소년'_1
50	5.17	뉴시스	'누에 소년'_2
51	5.17	뉴시스	'진정한 누에체험'
52	5.17	뉴시스	누에는 내 친구
53	5.17	뉴시스	이것이 진짜 누에체험
54	5.17	뉴시스	'누에 소년'_3
55	5.17	뉴시스	물레 돌려 실을 뽑아요
56	5.17	뉴시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요
57	5.17	뉴시스	누에고치에서 실 뽑기, 신기하죠?
58	5.17	뉴시스	'누에 체험'
59	5.17	뉴시스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요_1
60	5.17	뉴시스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요_2
61	5.17	뉴시스	무섭지 않아요
62	5.17	뉴시스	실을 뽑아요
63	5.17	뉴시스	누에 체험 재미있어요_1
64	5.17	뉴시스	'누에 소년'
65	5.17	뉴시스	무섭지 않아요
66	5.17	뉴시스	'귀여운 누에'
67	5.17	뉴시스	누에 체험 재미있어요_2
68	5.17	뉴시스	누에 체험 재미있어요_3
69	5.17	뉴스1	누에고치의 풍요를 기원하는 선잠제향 봉행
70	5.17	뉴스1	누에고치의 풍요를 기원하는 선잠제향
71	5.17	뉴스1	'누에고치의 풍요를 기원하며'
72	5.17	뉴스1	'신기한 누에'
73	5.17	뉴스1	'누에에서 실이 되기까지'
74	5.17	뉴스1	신기한 누에고치
75	5.17	뉴스1	누에 '손에서 간질간질'
76	5.17	시민일보	성북구, 문화다양성축제 '누리마실' 성황

선잠제향(先蠶祭享),

뉴시스 | 입력 2015.05.17. 13:0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선잠단지(사적 제83호)에서 '성북문화다양성축제 2015 누리마실'의 일환으로 열린 제22회 선잠제향 재현행사에서 선잠제향 보존위원회 소속인 지역 주민들이 조선시대 왕비가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 위해 잠신 서릉씨를 배향하던 '선잠제향(先蠶祭享)' 봉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누에치기의 풍요를 기원하며 국가 의식으로 열리던 선잠제향 재현행사는 조선 순종 2년(1908년) 이후 중단됐던 것을 1993년 성북구가 선잠제 보존위원회의 종묘제례보존회, 대한잠사회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재현, 올해로 22회를 맞는다. 2015.05.17.



chocrystal@newsis.com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예술제 4일 개최

news1 | 기사입력 2015-06-01 15:06



4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포스터.(성북구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회장 이상호)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관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가 4일 오후 7시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평화통일예술제에는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명인 이생강 씨를 비롯한 성북구의 문화예술인들이 참가, '광복, 전쟁, 분단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식전행사로 고려대 합창단(단장 하진영)이 '광복절 노래'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한다.

보훈단체의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본 공연에서는 성북구 주민인 이생강 명인이 각 지방의 아리랑을 대금으로 연주한다.

성북연극협회 맹봉학 회장을 비롯한 연극인들이 각각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육사의 '광야', 조지훈의 '다부원에서' 등의 시를 낭송한다.

독립지사 우당 이회영의 부인 고 이은숙(1889~1979)의 삶을 소재로 한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은숙은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무정부주의적 독립운동을 펼친 이회영의 아내로, 해방 후 성북구 정릉에서 여생을 보냈다.

부대행사로는 8~30일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내에서 '광복, 전쟁, 통일'이란 주제로 독립운동활동과 한국전쟁 관련 사진 300여 점이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성북구는 일제 강점기 만해 한용운이 살던 성북동 심우장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지사들이 곳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교류를 한 고장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를 통해 지사와 선열들의 희생과 후손들의 삶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광복과 분단, 전쟁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evermind@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77	5.22	불교닷컴	선학원, 6월은 만해 한용운의 달
77	6.01	뉴스1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예술제 4일 개최
78	6.01	뉴스1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예술제 4일 개최
79	6.01	여성종합뉴스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80	6.01	제이칸뉴스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개최
81	6.01	시사경제신문	광복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82	6.01	국제뉴스	광복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83	6.01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84	6.02	시대일보	성북구, 광복70주년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85	6.04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86	6.11	뉴스천지	[서울-성북구] '광복, 전쟁, 분단 그리고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



▲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한 장면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연의 대미는 독립지사 우당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1889~1979년) 여사의 삶을 소재로 한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였다. 이은숙 여사는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무정부주의적 독립운동을 펼친 이회영의 아내로, 해방 후 성북구 정릉에서 여생을 마쳤다. 독립지사의 아내로서 극도로 어려운 형편에서 남편을 내조했던 그녀의 삶이 극으로 되살아났다.

본 행사에 이은 부대행사로는 광복 70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사진전이 열린다. '광복, 전쟁, 통일'이란 주제 아래, 독립운동활동과 한국전쟁 관련 사진 300여점이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내에서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전시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독립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 심우장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 하는 지사들이 성북구 곳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를 통해 지사와 선열들의 희생과 후손들의 삶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광복과 분단, 전쟁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북구] '광복, 전쟁, 분단 그리고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예술제 개최'中
「뉴스천지」, 2015. 6. 11.

만해 한용운 71주기 다례제 29일 열린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5-06-26 07:23 | 최종수정 2015-06-26 08:41



만해기념관 앞에 만해 선생의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추모하는 71주기 '만해 추모 다례제'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처가 26일 밝혔다.

조계종 내 재단법인인 선학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각계 인사와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는 성북문화원 주관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다례제'가 열린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한용운 선생은 1905년 백담사에서 승려가 됐으며 1919년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돼 3·1 운동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옥고를 치른 선생은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하는 등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했다.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과 같은 저술을 통해 불교 개혁에도 힘썼다. 그는 광복을 겨우 1년여 앞둔 1944년 6월 29일 입적했다.

ljglory@yna.co.kr

'만해 한용운 71주기 다례제 29일 열린다'
「연합뉴스」, 2015. 6. 26.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87	6.26	연합뉴스	만해 한용운 71주기 다례제 29일 열린다
88	6.26	BBS	29일 만해 한용운 추모 다례제 열려
89	6.26	정책브리핑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행사
90	6.26	뉴시스	보훈처, 29일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행사
91	6.26	불교공뉴스	만해 한용운 71주기 추모 다례제
92	6.26	세계일보	보훈처, 29일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식
93	6.26	문화일보	한용운 71주기 '추모 다례제'
94	6.26	뉴스1	만해 한용운 다례제·추모예술제 29일 개최
95	6.26	전국매일신문	6.29 '만해 데이(Day)'엔 성북동 심우장으로 오세요
96	6.26	뉴스캔	보훈처, 29일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식 거행
97	6.26	THE KOREA NEWS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행사
98	6.26	여성종합뉴스	국가보훈처 만해 한용운 선생 71주기 추모행사
99	6.26	시사경제신문	성북구·성북문화원, 만해 추모 행사 연다
100	6.27	국제뉴스	보훈처 "만해 한용운 선생…71주기 추모행사" 열어
101	6.27	여성종합뉴스	성북구-성북문화원, 만해 한용운 입적 71주기 다례재·추모예술제
102	6.28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입적 71주기 다례재·추모예술제 열려
103	6.28	시민일보	만해 기리는 다례제 · 예술제 29일 열려
104	6.28	신아일보	만해 한용운 71주기 다례제 개최
105	6.28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만해 한용운 추모" 오늘 추모예술제·다례제 개최
106	6.29	한국시정신문	6.29 '만해 데이(Day)'성북동 심우장에서 71주년 다례제
107	6.29	의회신문	만해 한용운 다례제·추모예술제 개최
108	6.29	뉴시스	추모사 낭독하는 정상옥 이사
109	6.29	뉴시스	헌다하는 정상옥 이사
110	6.29	불교신문	선학원·성북문화원, 만해스님 71주기 다례재 봉행
111	6.29	한국경제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112	6.29	브릿지경제	의미심장한 6월 29일
113	6.29	불교닷컴	"국민이 걱정하는 불교, 만해 불호령이 그립다"
114	6.29	불교저널	"심우장은 민족의 자존심 상징하는 곳"
115	6.29	BBS	만해 스님 추모 71주기 행사 잇따라(종합)
116	6.30	신문고뉴스	만해 '한용운' 서거 71주기 추모 다례제 열려

선학원·성북문화원, 만해스님 71주기 다례재 봉행

사부대중 50여 명 참석…만해 정신 계승 다짐

[0호] 2015년 06월 29일 (월) 13:56:38 엄태규 기자 ✉ che11@ibulgyo.com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스님의 기일을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재단법인 선학원과 성북문화원은 오늘(6월29일) 오전11시30분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스님 71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심우장은 1944년 6월29일 만해 스님이 입적한 곳으로 성북문화원은 매년 이곳에서 만해 선사를 추모하는 다례를 열어왔다. 이날 다례재에는 선학원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들과 정상옥 성북문화원 이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해 만해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례재에 이어 부대행사로 시낭송과 국악공연을 비롯해 추모예술제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 뮤지컬 등이 펼쳐졌다.

정상옥 성북문화원 이사는 "심우장은 만해선사께서 마지막 10년을 보낸 뜻 깊은 곳"이라며 "이 자리에서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선학원 · 성북문화원, 만해스님 71주기 다례재 봉행'
「불교신문」, 2015. 6. 29.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17	8.14	아시아경제	한용운 등 '성북 독립운동가 말하다' 토크콘서트
118	8.14	국제뉴스	성북구,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말하다' 개최
119	8.14	의회신문	성북구, 광복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120	8.14	시사경제신문	독립운동가를 말하다…광복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121	8.15	여성종합뉴스	성북구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말하다
122	8.27	경향신문	성북동길 달빛 골목 걷다 보면 소소한 기쁨에 흠뻑
123	9.18	불교닷컴	[복지단신] 어르신·다문화가족 모두 한가위 '풍성'
124	9.19	에이블뉴스	추석 앞두고 성북장애인복지관과 따뜻한 동행
125	9.29	불교신문	성북장애인복지관 한화건설, 재가장애인 추석 행사

성북구, 15일 오후 7시 삼선교 분수마루서 광복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말하다' 개최... 만해 한용문· 이은숙· 이규창· 유우석· 조소앙 등 성북구 독립운동가 소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광복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토크콘서트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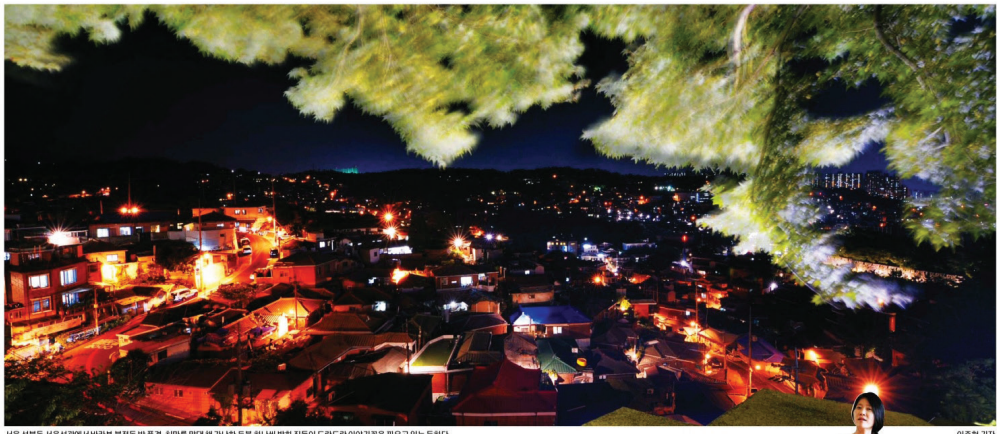
삼선교 분수마루에서 오후 7시에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방송인이자 한국문화연대 공동대표인 정재환 사회로 진행돼 역사문제연구소 한봉석 연구원과 성북문화원 박수진 향토사연구팀장이 패널로 참석, 만해 한용운을 필두로 이은숙, 이규창, 유우석 조소앙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한다.

또 만해 한용운의 '인연설'에 노래를 붙인 가수 하이런의 초청공연, 밴드 '빈티지-프랭키' 음악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용운 등 '성북 독립운동가 말하다' 토크콘서트'
「아시아경제」, 2015. 8. 14.

경향신문

2015년 08월 27일
16면 (문화)



서울 성북동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북정동 밤 풍경. 처마를 맞댄 채 가난한 등불 하나씩 밝힌 집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듯하다.



이준헌 기자

>> 성북동 주민 이효재처럼 걷기

성북동길

달빛 골목 걷다 보면 소소한 기쁨에 흠뻑

'성바깥 북쪽 동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성북동.
조선시대 한양도성 밖에 생겨난 성북동은 산 깊고 물 맑은 마을이었다. 산세가 아름답고 한적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살았다.
만해 한용운, 소설가 염상섭, 간송 전형필, 서예가 오세창, 시인 조지훈, 은보 김기창이 이곳 성북동에서 시를 쓰고 붓을 들어 창작의 혼을 불살랐다.
서울성곽이 북원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면서 성북동을 재조명하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자연주의 살림꾼'이자 한복 디자이너, 보자기 예술가인 이효재씨(57)는 성북동 길상사 앞에 둥지를 튼 지 10년 가까이 된다.
이방인의 여행길이 아닌 주민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북동은 어떤 곳일까. 이효재씨를 따라 성북동을 2시간가량 걸었다.



1933년 성북동에 살았다면 이웃이 누구였을까.

만해 한용운, 시인 조지훈, 간송 전형필, 소설가 이태준…,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마을버스 3번으로갈아타면 소박하고 정갈한 그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

만해 한용운(1879~1944)부터 만나보자. 마을버스 종점인 북정노인정에서 내려 좁은 골목으로 조금 내려가니 심우장이 보였다. 심우장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 시인이었던 만해가 1933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마지막 11년을 살았던 곳이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성북동 골짜기에서 셋방살이를 하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 집을 지었다. 잘 알려진 대로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고 싶지 않다며 북향으로 터를 잡은 집이다.

한용운은 시 '신거'(1936)에서 "공산의 적막이여/ 여태서 편가한 근심을 가져오는가"라고 했다. 그에게 산거는 생활이 아니었을까. "조선 전체가 감옥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불을 피운 따뜻한 방에서 잠을 편히 잘 수 있겠느냐"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만해는 실제로 한겨울 냉방에서 지내면서 몸과 마음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 '저울추'라는 별칭을 얻었다.

시인 조지훈(1920~1968)은 아랫동네에 살았다. 조지훈은 1937년 만해를 도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승을 거둔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 선생의 시신을 심우장으로 모셔 5일장을 함께 치렀다. 조지훈은 자신의 성북동 집을 '방우산장'이라고 이름 지었다. 만해의 심우장이 "소를 찾는다"는 의미라면 방우산장은 "소를 모아놓는다"는 뜻이다. 조지훈은 "마음속으로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직접 키우지 않아도 소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했다고 한다. 훗날 조지훈은 '신전자'(1954)라는 잡지에서 "한용운 선생의 향기를 나는 일찍이 어려서 들었다"고 적었다.

조지훈은 방우산장에 32년 동안 살며 작품을 썼지만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1998년 집이 헐려버린 탓이다. 골목 귀퉁이 동네쌀집 앞에 집터를 알리는 초라한 비석이 쓸쓸하다. 2번과 3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조지훈의 시가 적힌 쉼터가 있다. 조지훈은 소설가 이태준(1904~?)이 편집장을 지내던 잡지 '문장'에서 '승무'(1939)를 처음 발표했다.

이태준의 집 '수연산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태준은 1933년 만해의 집 건너편에 터를 잡고 1946년까지 14년 동안 성북동 산기슭에 살았다. 100평이 조금 넘는 규모에 안채, 사랑채, 아담한 꽃밭을 둔 한옥 집에서 <심락원 이야기> 등을 썼고 정지용과 함께 구인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문체가 뛰어났던 이태준은 <달밤>이라는 소설에서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이라고 적었다. 수연산방에서 차 한잔을 마시며 지금도 스테디셀러인 그의 책 <문장강화>를 펼쳐본다.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나라를 지킨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은 이태준과 휘문고 동창이다. 간송은 1933년 성북동 일대에 땅을 사기 시작해, 1934년 북단장이라는 집을 지었고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 지금의 간송미술관을 지었다. 간송은 전 재산을 털어세계 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혜원 풍속도를 포함해 국보 12점, 보물 10점 등 5000점을 일본으로부터 사들였다.

성북문화원 박수진 향토사연구팀장(35)은 "1933년 한용운과 조지훈, 이태준과 전형필은 한동네에 사는 이웃이었다"며 "일제강점기 4명의 흔적을 더듬어가면 남다른 성북동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일제강점기 '성북동 이웃' 4인의 흔적을 더듬다

■ **낮과 밤이 다른 성북동** "성북동은 밤에 봐야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밤에 걸어요."

이효재씨를 만난 것은 지난 26일 저녁 9시였다. 가로등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깜깜한 밤에 서울성곽길을 걷기로 했다. 그의 집 앞 길상사에서 출발했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빈다. 달빛이 얼굴을 내미는 시간, 길상사는 대낮의 번잡함을 걷어내고 적막을 입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 100m쯤 떨어진 '북악수퍼'에 들러 발효 음료수를 하나씩 샀다. 북악수퍼는 길상사 부근에 있는 유일한 동네 가게다. 하지만 없는 게 없었다. 수십개국의 대사관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인지 진열대에 수입 제품들이 가득했다.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매두는 고리가 인상적이었다. 주변의 집들은 성채를 닮았다. 감히 넘볼 수 없는 담벼락을 따라 쉬엄쉬엄 내려갔다. 빨간 벽돌 담장 아래를 뒤덮은 영춘화가 초록 커튼 같았다. "누가 살길래, 얼마나 지킬 것이 많길래 저렇게 높게 담을 쌓아올린 것일까요." 그가 묻고 답했다. "미국이나 유럽 주택가처럼 성북동의 담벼락을 모두 허물면 좋겠어요."

15분정도 걸었을까. 마을버스가 나타났다. 지난 4월 소리소문 없이 생겨난 2번 마을버스다. 성북동을 찾는 발걸음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배 떨어지면 우리 식구만 타요. 운전을 못하는 제게 자가용 대신 전용버스가 생긴 셈이에요."

길 왼쪽 성당을 지나 구불구불 내려가니 스티로폼 화단이 이어졌다. 더덕, 국화, 장미 등 온갖 꽃들이 골목을 꽃밭으로 수놓았다.

"여름은 솔직히 매력이 없어요. 파마 머리의 아줌마들처럼 다 똑같잖아요." 여름 산이 파마 머리 같다는 비유가 그럴듯했다.

■ **한밤에 서울성곽 오르기** 한양도성 건기는 성곽이 끊긴 곳부터 시작했다. 서울 성곽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궁궐과 종묘를 지은 뒤 1395년(태조 5년) 세우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성곽을 따라 가자 오르막길이 나왔다. 600년 성곽에 둘러싸인 소나무들이 달빛을 이고 우뚝하다. 이내 숨이 차올랐다. 그가 "이쯤 와서 쉬었다 가야 한다"며 북악수퍼에서 산 음료를 책받침보다 작은 손가방에서 꺼냈다. 산자락에서 부는 바람의 결이 순하고 시원했다.

이슨을 바라본다는 그는 성북동을 거닐며 "고통은 혼자 느끼고, 기쁨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는 시간, 걷기는 행복이라고 했다. 또 오르막길이 나타났다. 서울 성곽길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겠다고 중얼거리는데 오른쪽으로 작은 문 하나가 보였다. 혜화문과 숙정문 사이, 상백에 누(樓) 없이 만들어진 비밀의 문, 한양도성 북서쪽의 암문(暗門)이었다. 유사시 도성의 문이 봉쇄당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문. 평소에는 돌로 막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여는 비상구였다.



문을 나왔다. 이제부터 성 밖이다. 성 안은 종로구, 밖은 성북구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상백에 뿌리를 내리고 낮게 오르린 작은 풀들이 예쁘다. 발아래 탯줄을 이고 있는 지붕들이 정겹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탤다가 가슴에 금이 간' 성북동 비둘기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휘황한 서울 야경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저 풍경 보세요. 저러고도 살아내는데 우리 모두 잘 살아내야 해요."

■ **북정동 골목 걷기** 종종걸음으로 그를 따라 경사를 내려오니 낡은 동네가 보였다. 서울성곽과 마주한 첫 마을 북정동. 일제강점기에 성곽이 무너지면서 왕과의 경계가 사라졌다. 한국전쟁 후에는 피란민들이 몰려와 판잣집을 지었다고 한다. 범죄처럼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었다. 희색 담벼락 골목은 딱 한 사람만 지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팔을 벌리니 두 손이 벽에 닿았다.

작은 집들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벽을 하얗게 칠한 집도 있고 장독대를 올린 집도 있다. 화분을 내놓은 집도 여럿이다. 라넌셔츠 차림으로 TV 를 보는 아저씨, 빨래랜 자개장 아래 누워 잠을 자는 할머니도 보인다. 담이 높으면 이웃을 모르지만 서로가 다 보고 사니 진솔해질 수밖에 없다. 마주치면 시시콜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골목이 북정동에는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성곽과 북악산에 둘러싸인 성북동은 외진 동네다. 도심 진입도 번거롭고 오르막길로 이어져 불편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지 모른다. 도심에서 떨어져 주변화된 일상이 거기에 있다. 돌담 사이에 꽃이 피고 골목에 작은 화분을 내놓는 마음이 있다. 이 소소하고 작은 풍경이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CB5.2×49.0/cm

'성북동길 달빛 골목 걷다 보면 소소한 기쁨에 흠뻑'
「경향신문」, 2015. 8. 27.

문화원 공연팀의 열정

연합뉴스 | 입력 2015.10.22. 15:48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시문화원 엑스포'에서 지역별 공연팀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 2015.10.22

jjaeck9@yna.co.kr

(끝)



'문화원 공연팀의 열정'
「연합뉴스」, 2015. 10. 22.

전통부채 관람하는 시민들

뉴시스 | 입력 2015.10.22. 17:36

【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서울 문화원 엑스포'에서 성북문화원 부스를 찾은 시민들이 전통부채를 관람하고 있다. 2015.10.22.

taehoonl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통부채 관람하는 시민들'
「뉴시스」 2015. 10. 22.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26	10.19	연합뉴스	서울 25개 지방문화원 한자리에… 22일 서울문화원엑스포
127	10.19	뉴스와이어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28	10.19	네트워크신문	서울시,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29	10.19	TBS	서울문화원엑스포 22일 서울광장서 열려
130	10.19	뉴스워커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1	10.19	이슈와 뉴스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2	10.19	위클리서울	'서울! 25色 문화의 어울림 -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3	10.19	페어뉴스	25개 서울 지방문화원이 하나되는 2015 서울 문화원엑스포 서울광장서 개최
134	10.19	서울시티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5	10.19	한민족신문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136	10.19	불교공뉴스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7	10.19	서울매일	22일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8	10.19	드림저널	25色 문화의 어울림,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39	10.19	서울디지털신문	서울시,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22일 서울광장서 개최
140	10.19	뉴스온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개최
141	10.22	검경일보	'서울! 25色 문화의 어울림-문화원엑스포' 개최
142	10.22	시사포커스	서울 ! 25色 문화의 어울림 열려
143	10.22	뉴시스	2015 서울문화원 엑스포, '다양한 그림의 전통부채'
144	10.22	뉴시스	전통부채 관람하는 시민들
145	10.22	연합뉴스	문화원 공연팀의 열정
146	10.22	연합뉴스	문화원 공연팀의 열정
147	12.03	아시아경제	성북구 주민센터 마을 배우는 주민열기로 가득
148	12.04	여성종합뉴스	주민센터에서 '불금'하는 성북구 주민들
149	12.04	헤럴드경제	성북구 종암동·동선동, '불금' 마을배움터
150	12.04	제이칸뉴스	주민센터에서 '불금'하는 성북구 주민들
151	12.04	한국공보뉴스	주민센터에서 '불금'하는 성북구 주민들
152	12.04	한강타임즈	성북구, 주민 중심 '마을계획단' 지원
153	12.04	전국매일신문	주민센터에서 '불금'하는 성북구 주민들
154	12.04	시사경제신문	성북구, 주민센터에서 마을을 배우는 주민들 눈길
155	12.04	서울복지신문	주민센터에서 '불금'하는 성북구 주민들

2015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 그룹 회장

부원장

서영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회장

이사

구자은	LS그룹 부회장
김신한	대성 사장
김영일	㈜태명실업 회장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정상옥	前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학예실장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회장

감사

권기중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운영위원

강석원	前 대한건축가협회장
서세옥	前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최만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문

김영준	성신웹진 회장
김해용	삼미산업(주) 회장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
박창호	템피스투자자문㈜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양창갑	서흥실업(주) 명예회장
이병무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피죤 회장
이의순	㈜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승소	㈜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허완구	㈜승산 회장

명예고문

김성배	한진관광 부회장
양대길	영우통상(주) 회장
윤덕병	(주)한국야쿠르트 회장

2015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원 김신한, 김재천, 김희진, 서영수, 심종현, 엄재룡, 정근호, 정상옥, 조태권, 천미전
㈜남양유업, ㈜세중엔지니어링, ㈜엘에스엠트론, ㈜태명실업, ㈜효성

개인 강희정, 김경서, 김금숙, 김유섭, 김주미, 김지은, 김진환,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박병호, 배경식, 배재현, 서준석,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이강한, 이건자, 이상림, 이영애, 이재석, 이정빈, 이준성, 장혜정, 채순자, 최미경, 최봉명, 최우석, 최호진, 한경옥, 한동현, 한봉석, 홍선희, 홍승순

기관 · 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재단법인 선학원 정법사, ㈜아이디시에스, 학연문화사, 한국무용반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진행합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며,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방법

- **일반후원**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으로 후원하는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16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성북문화원
수강생 모집

깊은 멋·나눔·즐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72기 봄

72기 봄학기 3월~5월(12주)		
	강좌기간	2016.03.02(수) ~ 05.24(화)
	접수기간	2016.02.01(월) ~ 02.29(월)
	수업무료참관기간	2016.01.25(월) ~ 01.29(금)

※ 수업무료참관

관심있는 강좌의 참관을 통하여 강좌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전화접수 필수)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문의전화 02-765-1611

홈페이지 www.isbcc.or.kr

결제방법 방문접수-현금 및 카드결제 / 인터넷접수-계좌이체 (인터넷 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함)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0900 (예금주:성북문화원)

강좌별 개강·종강 일정

72기 봄학기 3월 ~ 5월

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3.07	03.08	03.02	03.03	03.04
종강일	05.23	05.24	05.18	05.19	05.20

<휴관일> 3/1(화) 삼일절, 4/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5(목) 어린이날

www.isbcc.or.kr